5. 2021년 주요 지표범죄 분석

가. 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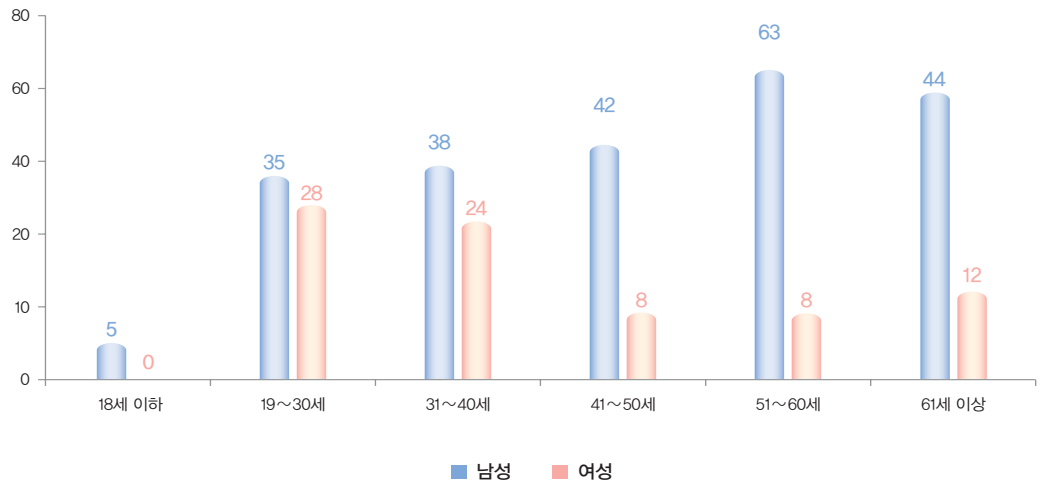
〈표 - 23〉 살인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 연령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8세 이하	5	2.2	0	0.0	5	1.6	5	1.4	1	1.6	6	1.5
19 - 30세	35	15.4	28	35.0	63	20.5	61	17.6	21	33.3	82	20.0
31 - 40세	38	16.7	24	30.0	62	20.2	55	15.9	12	19.0	67	16.4
41 - 50세	42	18.5	8	10.0	50	16.3	76	22.0	15	23.8	91	22.2
51 - 60세	63	27.8	8	10.0	71	23.1	74	21.4	6	9.5	80	19.6
61세 이상	44	19.4	12	15.0	56	18.2	74	21.4	6	9.5	80	19.6
미상	0	0.0	0	0.0	0	0.0	1	0.3	2	3.2	3	0.7
계	227	100.0	80	100.0	307	100.0	346	100.0	63	100.0	409	100.0

※ 성별 미상의 경우는 제외

(단위: 명)



〈그림 - 28〉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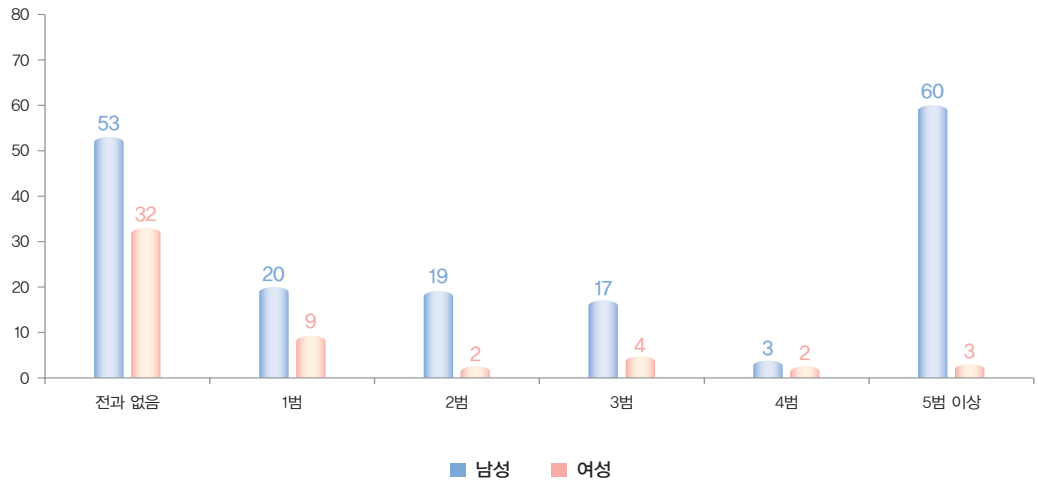
- 검거된 살인범죄자의 80%가 남성이었으며, 20%는 여성으로 나타남. 살인기수범죄자는 남성이 227명으로 여성 80명에 비해 2.8배 더 많았고, 살인미수 등 범죄자도 남성이 346명으로 여성 63명보다 5.5배 더 많았음
- 남성 살인기수범죄자를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50대(27.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1세 이상(19.4%), 40대(18.5%), 30대(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 살인미수 등 범죄자는 40대 (22.0%)가 가장 많았고, 50대(21.4%)와 61세 이상(21.4%), 20대(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 살인기수범죄자의 경우는 20대(35.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30.0%), 61세 이상(15.0%), 40대(10.0%)와 50대(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 살인미수 등 범죄자는 20대(33.3%)가 가장 많았고, 40대(23.8%), 30대(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24〉 살인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 전과횟수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53	23.3	32	40.0	85	27.7	73	21.1	30	47.6	103	25.2
1범	20	8.8	9	11.3	29	9.4	43	12.4	9	14.3	52	12.7
2범	19	8.4	2	2.5	21	6.8	24	6.9	8	12.7	32	7.8
3범	17	7.5	4	5.0	21	6.8	22	6.4	0	0.0	22	5.4
4범	3	1.3	2	2.5	5	1.6	23	6.6	0	0.0	23	5.6
5범 이상	60	26.4	3	3.7	63	20.5	116	33.5	4	6.3	120	29.3
미상	55	24.2	28	35.0	83	27.0	45	13.0	12	19.0	57	13.9
계	227	100.0	80	100.0	307	100.0	346	100.0	63	100.0	409	100.0

(단위: 명)



〈그림 - 29〉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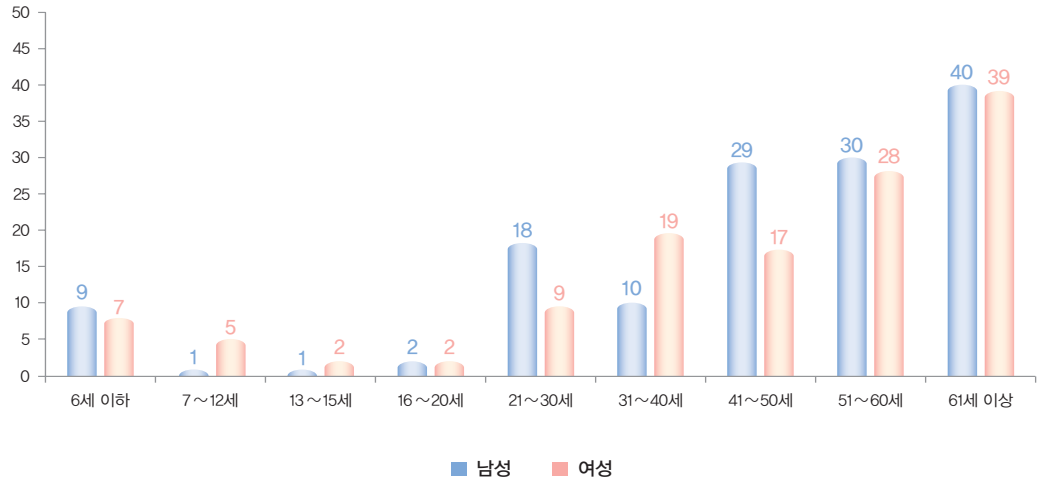
- 살인기수 범죄자의 전과횟수에 대해 살펴보면, 전과 없음의 비율은 여성이 40.0%로 남성의 23.3%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5범 이상의 비율은 남성이 26.4%로 여성의 3.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전과 없음 비율 또한 여성이 47.6%로 남성의 21.1%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전과횟수가 5범 이상의 비율은 남성이 33.5%로 여성의 6.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 25〉 살인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건, %)

구분 / 연령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불상		계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9	6.3	7	5.5	0	0.0	16	5.9	4	1.7	4	2.8	0	0.0	8	2.1
7 - 12세	1	0.7	5	3.9	0	0.0	6	2.2	4	1.7	1	0.7	0	0.0	5	1.3
13 - 15세	1	0.7	2	1.6	0	0.0	3	1.1	1	0.4	0	0.0	0	0.0	1	0.3
16 - 20세	2	1.4	2	1.6	0	0.0	4	1.5	4	1.7	7	5.0	0	0.0	11	2.8
21 - 30세	18	12.7	9	7.0	0	0.0	27	10.0	32	13.4	17	12.1	0	0.0	49	12.6
31 - 40세	10	7.0	19	14.8	0	0.0	29	10.7	29	12.1	20	14.2	0	0.0	49	12.6
41 - 50세	29	20.4	17	13.3	0	0.0	46	17.0	48	20.1	27	19.1	0	0.0	75	19.3
51 - 60세	30	21.1	28	21.9	0	0.0	58	21.5	59	24.7	28	19.9	0	0.0	87	22.4
61세 이상	40	28.2	39	30.5	0	0.0	79	29.3	58	24.3	37	26.2	0	0.0	95	24.5
미 상	2	1.4	0	0.0	0	100.0	2	0.7	0	0.0	0	0.0	8	100.0	8	2.1
계	142	100.0	128	100.0	0	100.0	270	100.0	239	100.0	141	100.0	8	100.0	388	100.0

(단위: 건)



〈그림 - 30〉 살인기수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대별 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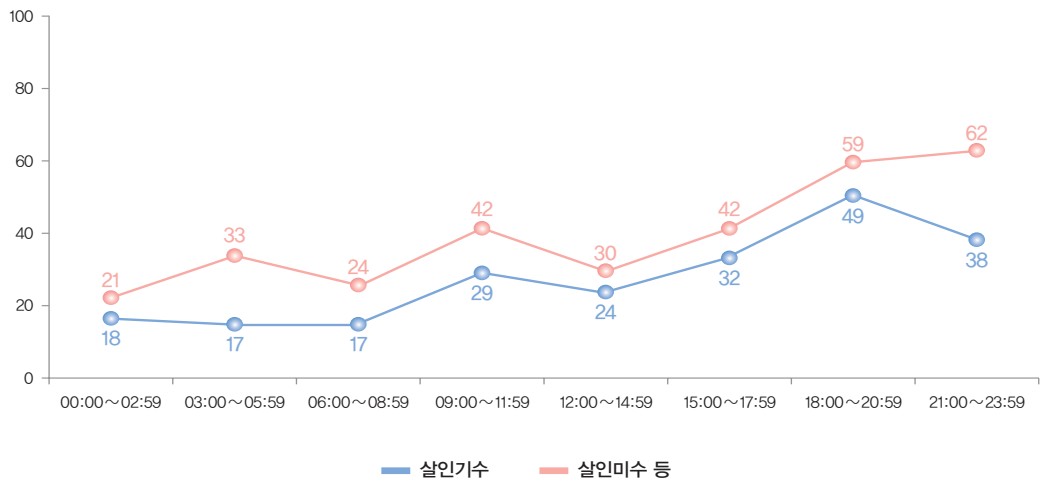
- 살인기수범죄의 피해자는 남성이 142명(52.6%), 여성이 128명(47.4%)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살인미수 등 범죄의 피해자도 이와 유사하나 다만 남성이 239명(61.6%), 여성이 141명(36.3%)로 기수범죄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살인기수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1세이상(29.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21.5%), 40대(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의 피해자는 61세이상(24.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22.4%), 40대(19.3%), 30대(12.6%)와 20대(12.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살인기수범죄 피해자와 살인미수범죄 피해자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 26〉 살인범죄 발생시간 분포

(단위: 건, %)

구분 / 발생시간	기수		미수 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18	6.7	21	5.4	39	5.9
03 : 00 ~ 05 : 59	17	6.3	33	8.5	50	7.6
06 : 00 ~ 08 : 59	17	6.3	24	6.2	41	6.2
09 : 00 ~ 11 : 59	29	10.7	42	10.8	71	10.8
12 : 00 ~ 14 : 59	24	8.9	30	7.7	54	8.2
15 : 00 ~ 17 : 59	32	11.9	42	10.8	74	11.2
18 : 00 ~ 20 : 59	49	18.1	59	15.2	108	16.4
21 : 00 ~ 23 : 59	38	14.1	62	16.0	100	15.2
미상	46	17.0	75	19.3	121	18.4
계	270	100.0	388	100.0	658	100.0

(단위: 건)



〈그림 - 31〉 살인범죄 발생시간 분포 (미상 제외)

- 살인기수범죄는 18:00~20:59 시간대(18.1%)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1:00~23:59 시간대(14.1%), 15:00~17:59 시간대(11.9%) 09:00~11:59 시간대(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살인미수 등 범죄의 경우에는 21:00~23:59 시간대(16.0%)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18:00~20:59 시간대(15.2%), 15:00~17:59 시간대(10.8%) 및 09:00~11:59 시간대(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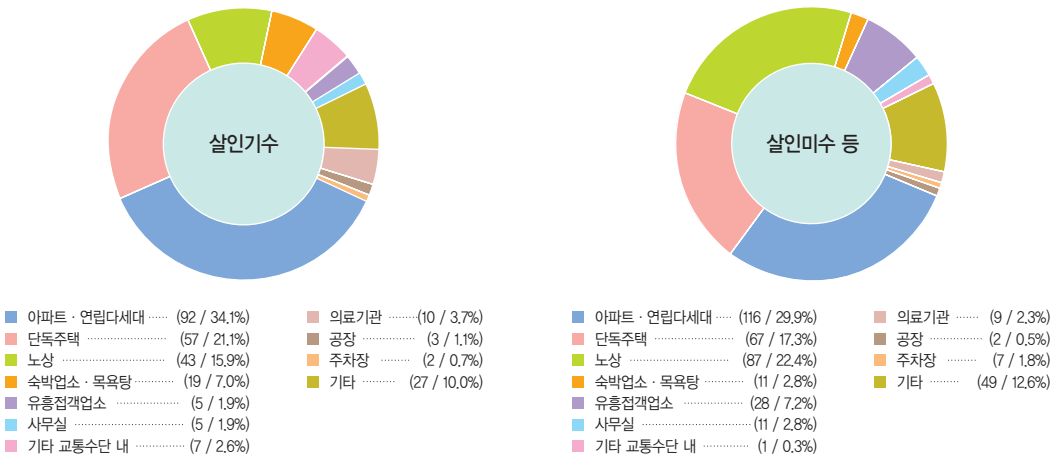
〈표 - 27〉 살인범죄 발생장소

(단위: 건, %)

구분 / 발생장소	기수		미수 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연립다세대	92	34.1	116	29.9	208	31.6
단독주택	57	21.1	67	17.3	124	18.8
노상	43	15.9	87	22.4	130	19.8
숙박업소·목욕탕	19	7.0	11	2.8	30	4.6
의료기관	10	3.7	9	2.3	19	2.9
기타 교통수단 내	7	2.6	1	0.3	8	1.2
유흥접객업소	5	1.9	28	7.2	33	5.0
사무실	5	1.9	11	2.8	16	2.4
공장	3	1.1	2	0.5	5	0.8
주차장	2	0.7	7	1.8	9	1.4
기타※	27	10.0	49	12.6	76	11.5
계	270	100.0	388	100.0	658	100.0

※ 살인기수 및 미수 등에서 각각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분류함

(단위: 건/%)



〈그림 - 32〉 살인범죄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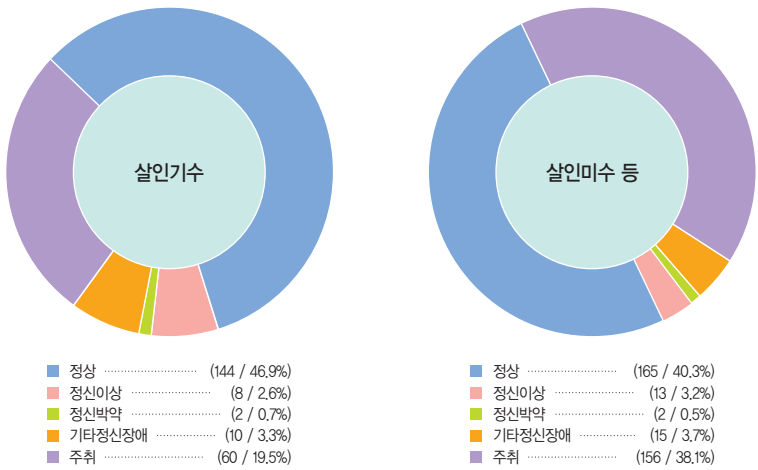
- 전체 살인범죄의 발생장소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연립다세대(31.6%)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노상(19.8%), 단독주택(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살인기수범죄의 발생장소는 아파트·연립다세대(34.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21.1%), 노상(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의 발생장소는 아파트·연립다세대(29.9%)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상(22.4%), 단독주택(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28〉 살인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명, %)

구분 / 범행시 정신상태	기수		미수 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144	46.9	165	40.3	309	43.2
정신이상	8	2.6	13	3.2	21	2.9
정신박약	2	0.7	2	0.5	4	0.6
기타정신장애	10	3.3	15	3.7	25	3.5
주취	60	19.5	156	38.1	216	30.2
미상	83	27.0	58	14.2	141	19.7
계	307	100.0	409	100.0	716	100.0

(단위: 명)



〈그림 - 33〉 살인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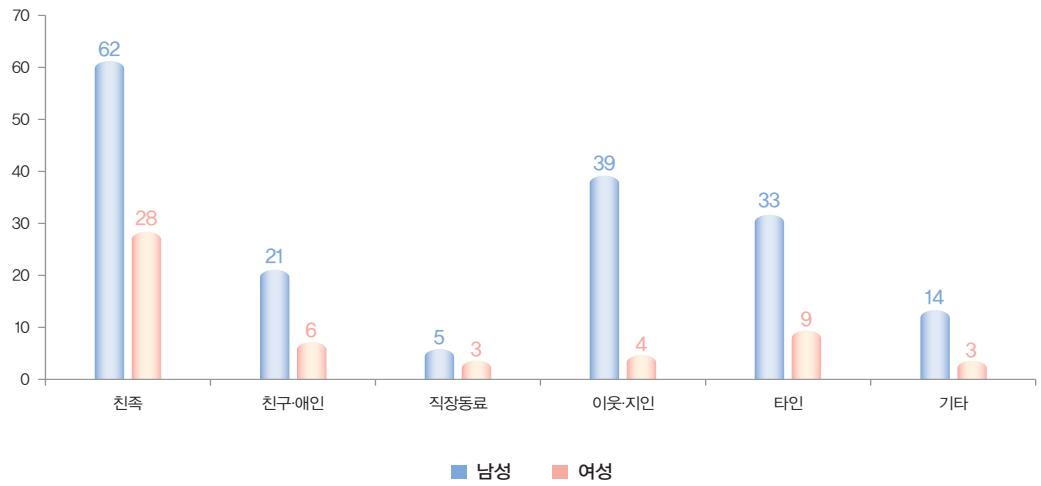
- 살인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는 살인기수와 살인미수 등의 경우 모두 정상인 비율이 각각 46.9%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신이상이나 정신박약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범죄자는 살인기수 6.6%(정신이상 2.6%, 정신박약 0.7%, 기타정신장애 3.3%), 살인미수 등은 7.4%(정신이상 3.2%, 정신박약 0.5%, 기타정신장애 3.7%)로 나타남

〈표 - 29〉 살인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 피해자와관계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62	27.3	28	35.0	90	29.3	67	19.4	26	41.3	93	22.7
친구 · 애인	21	9.3	6	7.5	27	8.8	45	13.0	12	19.0	57	13.9
직장동료	5	2.2	3	3.8	8	2.6	22	6.4	0	0.0	22	5.4
이웃 · 지인	39	17.2	4	5.0	43	14.0	57	16.5	4	6.3	61	14.9
타인	33	14.5	9	11.3	42	13.7	89	25.7	7	11.1	96	23.5
기타	14	6.2	3	3.7	17	5.5	22	6.4	2	3.2	24	5.9
미상	53	23.3	27	33.7	80	26.1	44	12.7	12	19.0	56	13.7
계	227	100.0	80	100.0	307	100.0	346	100.0	63	100.0	409	100.0

(단위: 명)



〈그림 - 34〉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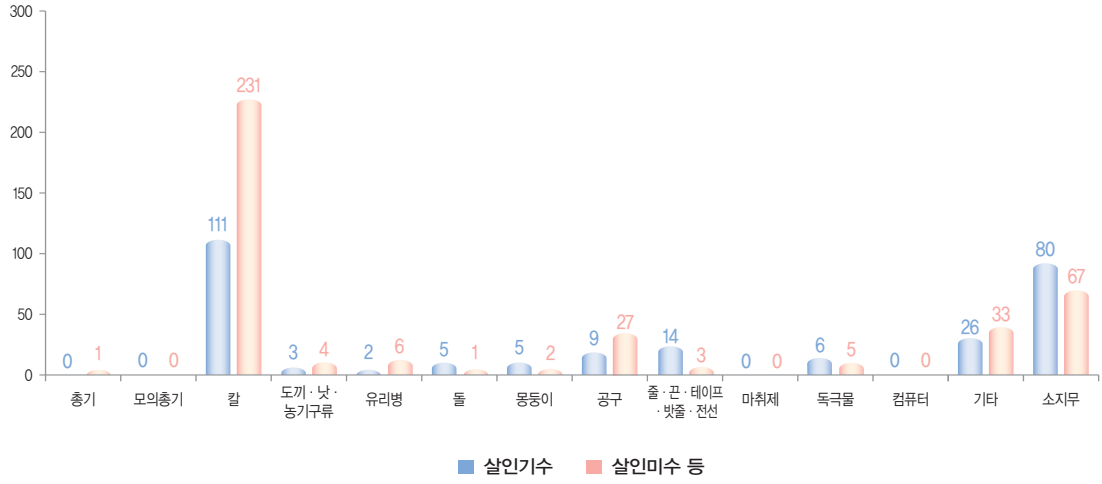
- 살인기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그 대상이 친족(29.3%)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웃 · 지인(14.0%), 타인(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의 경우 타인(23.5%)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22.7%), 이웃 · 지인(14.9%), 친구 · 애인(13.9%)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살인기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비율이 27.3%인데 비해, 여성은 35.0%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살인미수 등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타인에 대한 범죄의 비율(25.7%)이 높은 것에 반해, 여성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비율(41.3%)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 30〉 살인범죄 범행도구

(단위: 건, %)

구분 / 범행도구	기수		미수 등		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총기	0	0.0	1	0.3	1	0.2
모의총기	0	0.0	0	0.0	0	0.0
칼	111	42.5	231	60.8	342	53.4
도끼 · 낫 · 농기구류	3	1.1	4	1.1	7	1.1
유리병	2	0.8	6	1.6	8	1.2
돌	5	1.9	1	0.3	6	0.9
몽둥이	5	1.9	2	0.5	7	1.1
공구	9	3.4	27	7.1	36	5.6
줄 · 끈 · 테이프 · 밧줄 · 전선	14	5.4	3	0.8	17	2.7
마취제	0	0.0	0	0.0	0	0.0
독극물	6	2.3	5	1.3	11	1.7
컴퓨터	0	0.0	0	0.0	0	0.0
기타	26	10.0	33	8.7	59	9.2
소지무	80	30.7	67	17.6	147	22.9
계	261	100.0	380	100.0	641	100.0

(단위: 건)



〈그림 - 35〉 살인범죄 범행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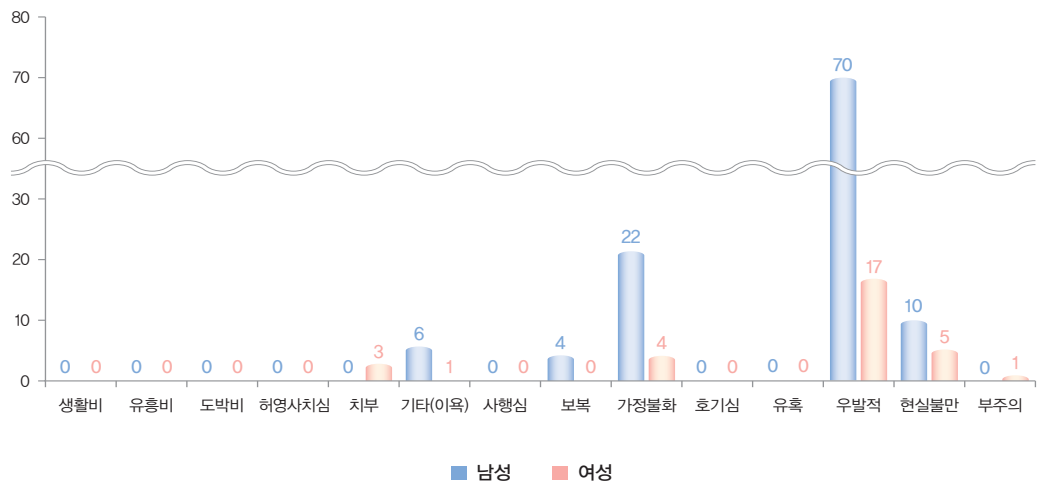
- 살인기수범죄의 범행도구는 칼을 사용한 경우(42.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외 범행도구로 줄 · 끈 · 테이프 · 밧줄 · 전선(5.4%)과 공구(3.4%)를 사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30.7%로 나타남
- 살인미수 등 범죄의 범행도구 역시 칼을 사용한 경우(60.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외 범행도구로 공구(7.1%)나 유리병(1.6%)를 사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17.6%로 기수범죄에 비해서 낮은 비율을 보임

〈표 - 31〉 살인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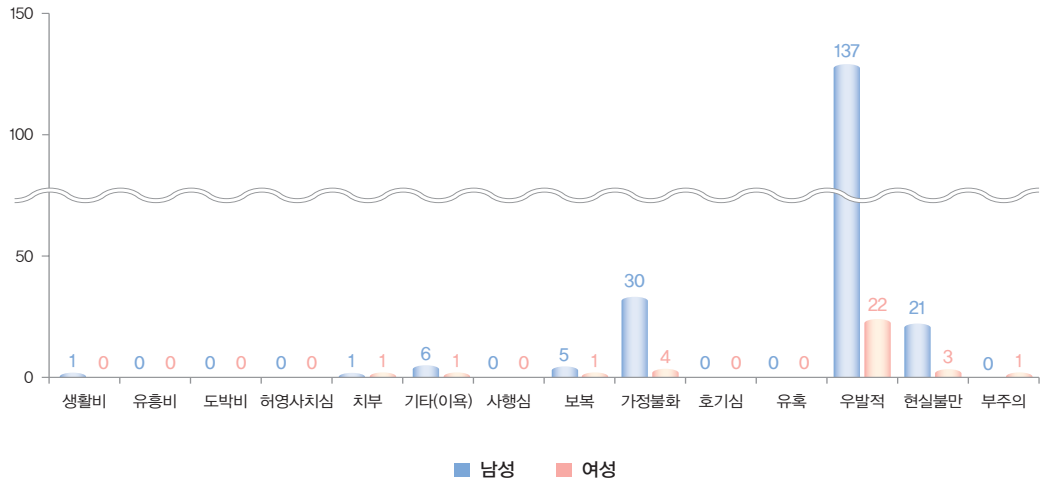
구분 / 범행동기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0	0.0	0	0.0	0	0.0	1	0.3	0	0.0	1	0.2
유흥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도박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허영사치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치부	0	0.0	3	3.8	3	1.0	1	0.3	1	1.6	2	0.5
기타(이욕)	6	2.6	1	1.3	7	2.3	6	1.7	1	1.6	7	1.7
사행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보복	4	1.8	0	0.0	4	1.3	5	1.4	1	1.6	6	1.5
가정불화	22	9.7	4	5.0	26	8.5	30	8.7	4	6.3	34	8.3
호기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유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우발적	70	30.8	17	21.3	87	28.3	137	39.6	22	34.9	159	38.9
현실불만	10	4.4	5	6.3	15	4.9	21	6.1	3	4.8	24	5.9
부주의	0	0.0	1	1.3	1	0.3	0	0.0	1	1.6	1	0.2
기타	60	26.4	21	26.3	81	26.4	99	28.6	18	28.6	117	28.6
미상	55	24.2	28	35.0	83	27.0	46	13.3	12	19.0	58	14.2
계	227	100.0	80	100.0	307	100.0	346	100.0	63	100.0	409	100.0

(단위: 명)



〈그림 - 36〉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단위: 명)



〈그림 - 37〉 **살인미수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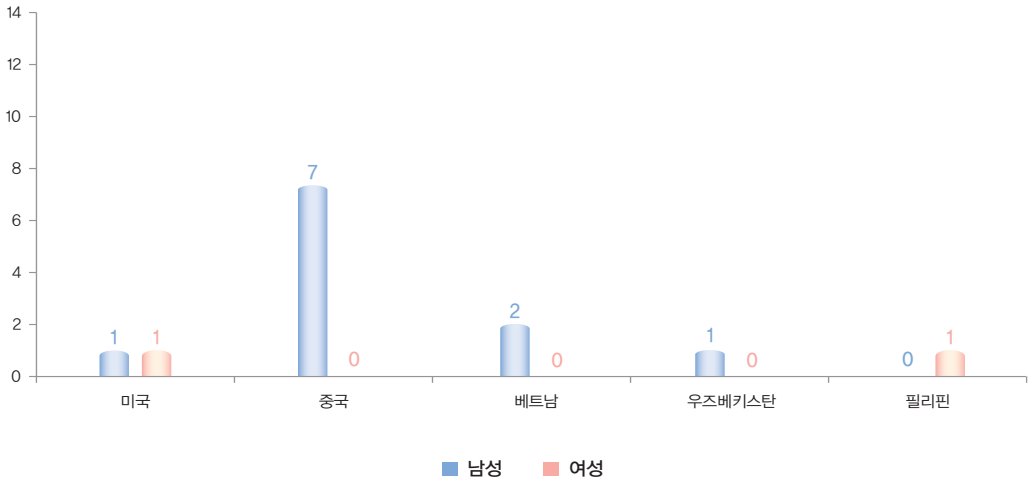
- 살인기수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28.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정불화(8.5%), 현실불만(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범행동기도 우발적인 경우(38.9%)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8.3%), 현실불만(5.9%) 등의 순으로 기수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남
- 살인기수범죄자 범행동기의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우발적(30.8%), 가정불화(9.7%), 현실불만(4.4%), 기타(이욕)(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우발적(21.3%), 현실불만(6.3%), 가정불화(5.0%), 치부(3.8%) 등의 순으로 성별에 따라 범행동기 비율과 유형이 다소 차이남
-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범행동기 비율의 경우 남녀 모두 우발적, 가정불화, 현실불만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32〉 살인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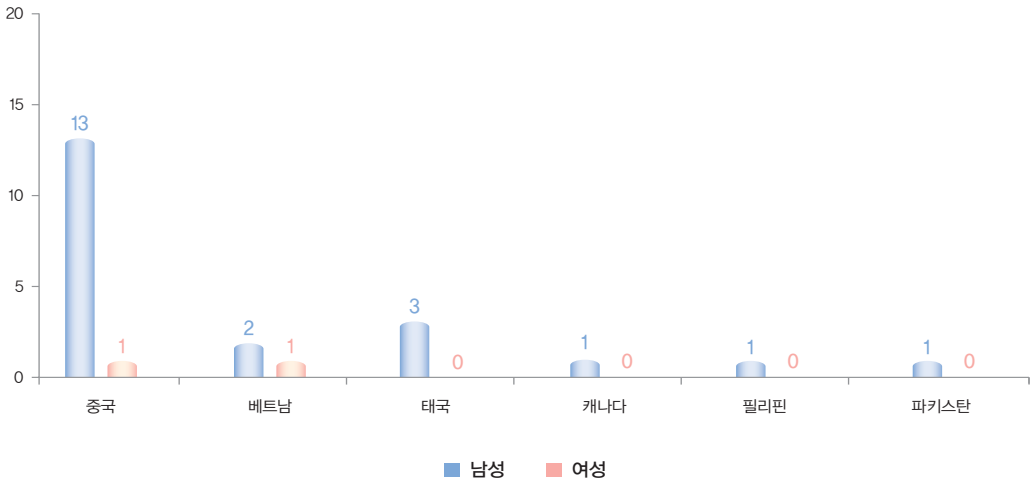
구분 / 국적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215	94.7	78	97.5	293	95.4	322	93.1	61	96.8	383	93.6
미국	1	0.4	1	1.3	2	0.7	0	0.0	0	0.0	0	0.0
중국	7	3.1	0	0.0	7	2.3	13	3.8	1	1.6	14	3.4
일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몽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베트남	2	0.9	0	0.0	2	0.7	2	0.6	1	1.6	3	0.7
태국	0	0.0	0	0.0	0	0.0	3	0.9	0	0.0	3	0.7
대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러시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방글라데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스리랑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즈베키스탄	1	0.4	0	0.0	1	0.3	0	0.0	0	0.0	0	0.0
인도네시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캐나다	0	0.0	0	0.0	0	0.0	1	0.3	0	0.0	1	0.2
키르기스스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필리핀	0	0.0	1	1.3	1	0.3	1	0.3	0	0.0	1	0.2
파키스탄	0	0.0	0	0.0	0	0.0	1	0.3	0	0.0	1	0.2
기타	1	0.4	0	0.0	1	0.3	3	0.9	0	0.0	3	0.7
계	227	100.0	80	100.0	307	100.0	346	100.0	63	100.0	409	100.0

(단위: 명)



〈그림 - 38〉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한국 · 기타제외)

(단위: 명)



〈그림 - 39〉 **살인미수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한국 · 기타제외)**

- 살인기수 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인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외국인이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경우에도 한국인이 93.6%, 외국인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살인기수 범죄자의 경우, 외국인 국적 중 중국 7명(2.3%), 미국 2명(0.7%), 베트남 2명(0.7%),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1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 중 중국 14명(3.4%), 베트남과 태국 3명(0.7%), 캐나다, 필리핀 및 파키스탄 1명(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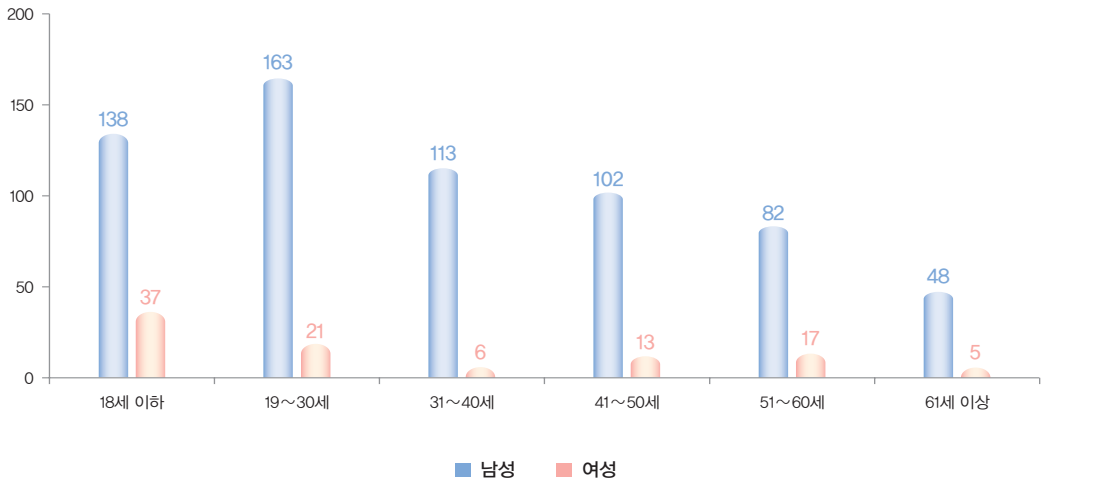
나. 강도

〈표 - 33〉 강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8세 이하	138	21.3	37	37.4	175	23.4
19 - 30세	163	25.1	21	21.2	184	24.6
31 - 40세	113	17.4	6	6.1	119	15.9
41 - 50세	102	15.7	13	13.1	115	15.4
51 - 60세	82	12.6	17	17.2	99	13.2
61세이상	48	7.4	5	5.1	53	7.1
미상	3	0.5	0	0.0	3	0.4
계	649	100.0	99	100.0	748	100.0

(단위: 명)



〈그림 - 40〉 강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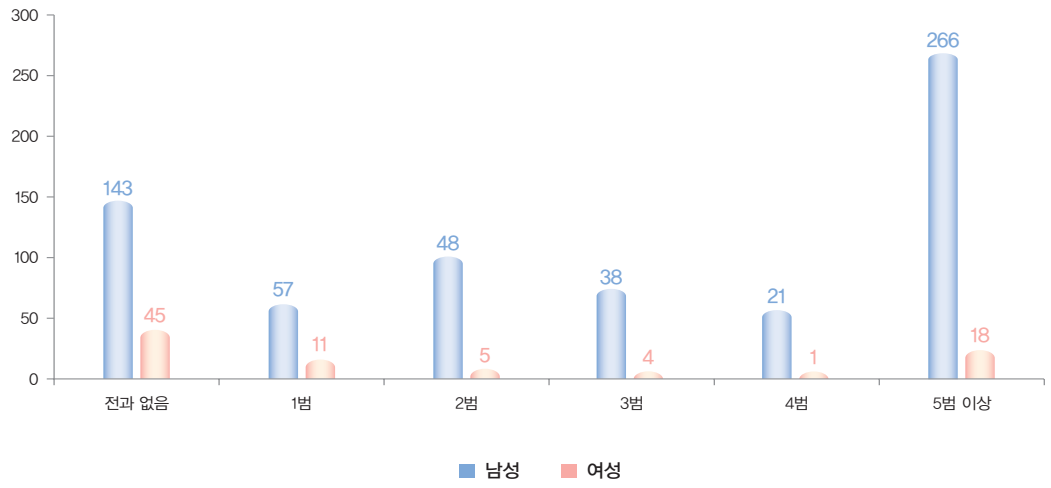
- 강도범죄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649명으로 전체 강도범죄자 중 86.8%로 나타남. 이에 비해 여성 강도범죄자는 99명, 전체 강도범죄자 중 13.2%로 남성 강도범죄자의 비율이 여성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24.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8세 이하(23.4%), 30대(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18세 이하 경우 연령범위가 5세인 점을 감안하면(14세 미만 제외) 23.4%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함
- 남성 강도범죄자의 경우 20대(25.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8세 이하(21.3%), 30대(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여성 강도범죄자의 경우에는 18세 이하(37.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20대(21.2%), 50대(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34〉 강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 전과횟수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143	22.0	45	45.5	188	25.1
1범	57	8.8	11	11.1	68	9.1
2범	48	7.4	5	5.1	53	7.1
3범	38	5.9	4	4.0	42	5.6
4범	21	3.2	1	1.0	22	2.9
5범 이상	266	41.0	18	18.2	284	38.0
미상	76	11.7	15	15.2	91	12.2
계	649	100.0	99	100.0	748	100.0

(단위: 명)



〈그림 - 41〉 강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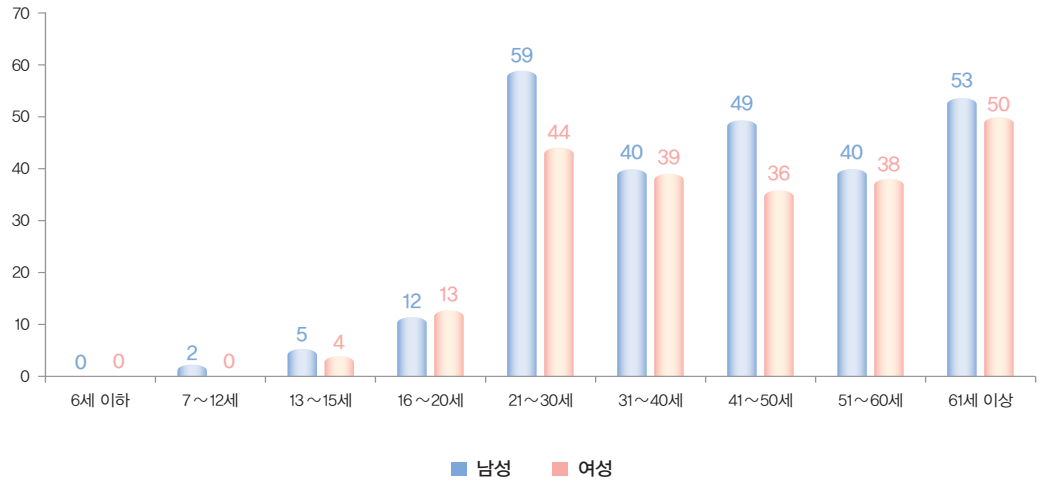
- 강도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5범 이상(38.0%)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과가 없는 경우(25.1%), 1범(9.1%), 2범(7.1%), 3범(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강도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과가 없는 경우 남성은 22.0%로 여성의 45.5%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전과횟수가 5범 이상의 비율은 남성이 41.0%로 여성의 18.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 35〉 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건,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0	0.0	0	0.0	0	0.0	0	0.0
7 - 12세	2	0.8	0	0.0	0	0.0	2	0.4
13 - 15세	5	1.9	4	1.8	0	0.0	9	1.8
16 - 20세	12	4.6	13	5.8	0	0.0	25	5.1
21 - 30세	59	22.7	44	19.6	0	0.0	103	20.8
31 - 40세	40	15.4	39	17.4	0	0.0	79	16.0
41 - 50세	49	18.8	36	16.1	0	0.0	85	17.2
51 - 60세	40	15.4	38	17.0	0	0.0	78	15.8
61세 이상	53	20.4	50	22.3	0	0.0	103	20.8
미상	0	0.0	0	0.0	11	100.0	11	2.2
계	260	100.0	224	100.0	11	100.0	495	100.0

(단위: 건)



〈그림 - 42〉 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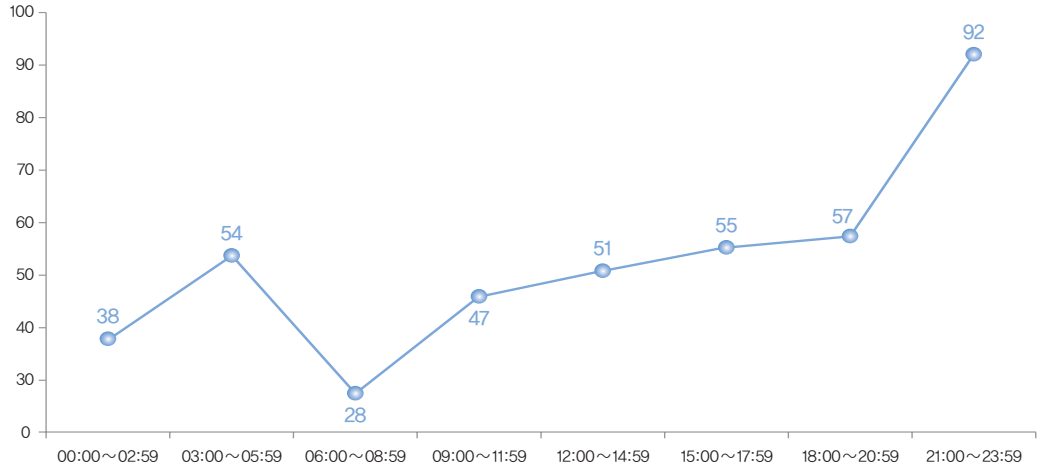
- 강도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260명(52.5%), 여성이 224명(45.3%)으로(피해자 중 성별 불상자는 11명)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강도범죄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20.8%)와 61세 이상(20.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40대(17.2%), 30대(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20대(22.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61세 이상(20.4%), 40대(18.8%), 30대와 50대(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에는 61세 이상(22.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 20대(19.6%), 30대(17.4%), 50대(17.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피해자 연령대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 36〉 강도범죄 발생시간

(단위: 건, %)

발생시간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38	7.7
03 : 00 ~ 05 : 59	54	10.9
06 : 00 ~ 08 : 59	28	5.7
09 : 00 ~ 11 : 59	47	9.5
12 : 00 ~ 14 : 59	51	10.3
15 : 00 ~ 17 : 59	55	11.1
18 : 00 ~ 20 : 59	57	11.5
21 : 00 ~ 23 : 59	92	18.6
미상	73	14.7
계	495	100.0

(단위: 건)



〈그림 - 43〉 강도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 강도범죄는 21 : 00~23 : 59 시간대(18.6%)에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18 : 00~20 : 59 시간대(11.5%), 15 : 00~17 : 59 시간대(11.1%) 등의 순으로 발생 비율을 보였음
- 강도범죄 발생건수는 00 : 00~02 : 59 시간대부터 18 : 00~20 : 59 시간대까지 10% 전후의 발생 비율을 보이다가 21 : 00~23 : 59 시간대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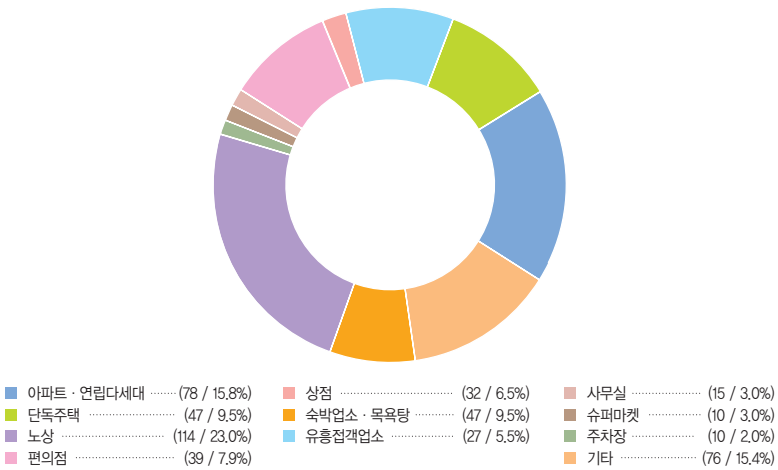
〈표 - 37〉 강도범죄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 · 연립다세대	78	15.8
단독주택	47	9.5
노상	114	23.0
편의점	39	7.9
상점	32	6.5
숙박업소 · 목욕탕	47	9.5
유흥접객업소	27	5.5
사무실	15	3.0
슈퍼마켓	10	2.0
주차장	10	2.0
기타*	76	15.4
계	495	100.0

※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재분류함

(단위: 건/%)



〈그림 - 44〉 강도범죄 발생장소

- 강도범죄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노상(23.0%)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 연립다세대(15.8%), 단독주택(9.5%), 숙박업소 · 목욕탕(9.5%), 편의점(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상점(6.5%), 유흥접객업소(5.5%), 사무실(3.0%)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강도범죄가 발생함

〈표 - 38〉 강도범죄 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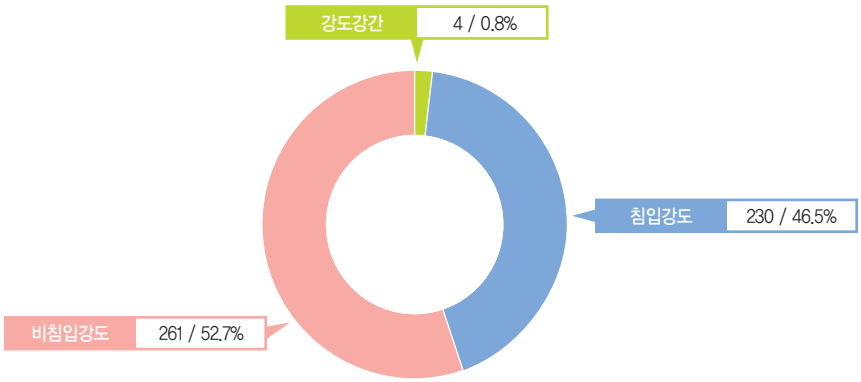
(단위: 건, %)

강도범죄수법	발생건수	구성비
침입강도	230	46.5
비침입강도	261	52.7
강도강간	4	0.8
미상	0	0.0
계	495	100.0

* 침입강도: 일반, 감금, 인질, 기타 침입강도

** 비침입강도: 차내강도(운전자상대강도), 노상강도, 차량이용강도, 마취강도, 약취유인강도, 기타 비침입강도

(단위: 건/%)



〈그림 - 45〉 강도범죄 수법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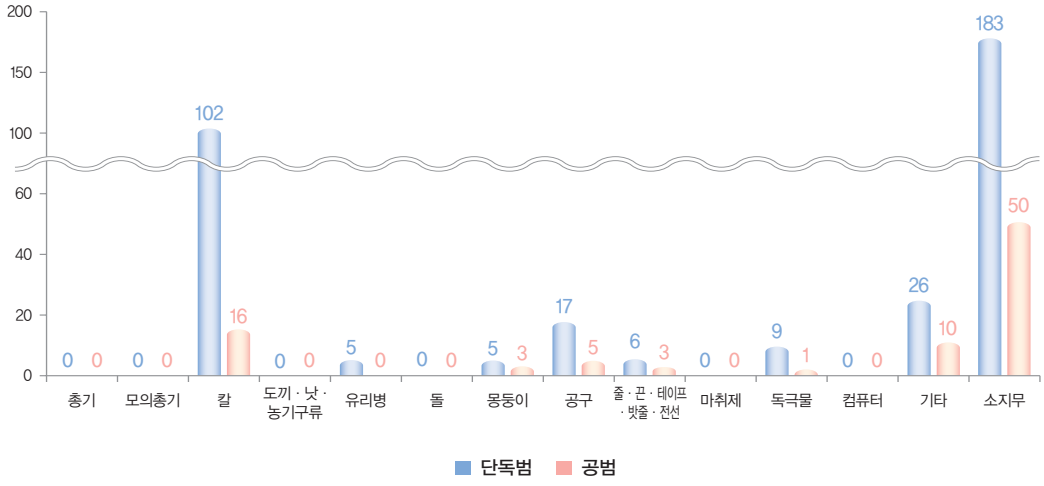
- 강도범죄 수법을 가장 상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비침입강도(52.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침입강도(46.5%), 강도강간(0.8%)의 순으로 비침입강도가 침입강도에 비해서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 39〉 강도범죄 범행도구

(단위: 건, %)

구분 / 범행도구	단독범		공범		기타		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총기	0	0.0	0	0.0	0	0.0	0	0.0
모의총기	0	0.0	0	0.0	0	0.0	0	0.0
칼	102	28.9	16	18.2	3	6.5	121	24.8
도끼 · 낫 · 농기구류	0	0.0	0	0.0	0	0.0	0	0.0
유리병	5	1.4	0	0.0	0	0.0	5	1.0
돌	0	0.0	0	0.0	0	0.0	0	0.0
몽둥이	5	1.4	3	3.4	2	4.3	10	2.1
공구	17	4.8	5	5.7	0	0.0	22	4.5
줄 · 끈 · 테이프 · 밧줄 · 전선	6	1.7	3	3.4	0	0.0	9	1.8
마취제	0	0.0	0	0.0	0	0.0	0	0.0
독극물	9	2.5	1	1.1	0	0.0	10	2.1
컴퓨터	0	0.0	0	0.0	0	0.0	0	0.0
기타	26	7.4	10	11.4	4	8.7	40	8.2
소지무	183	51.8	50	56.8	37	80.4	270	55.4
계	353	100.0	88	100.0	46	100.0	487	100.0

(단위: 건)



〈그림 - 46〉 강도범죄 범행도구 (기타 공범유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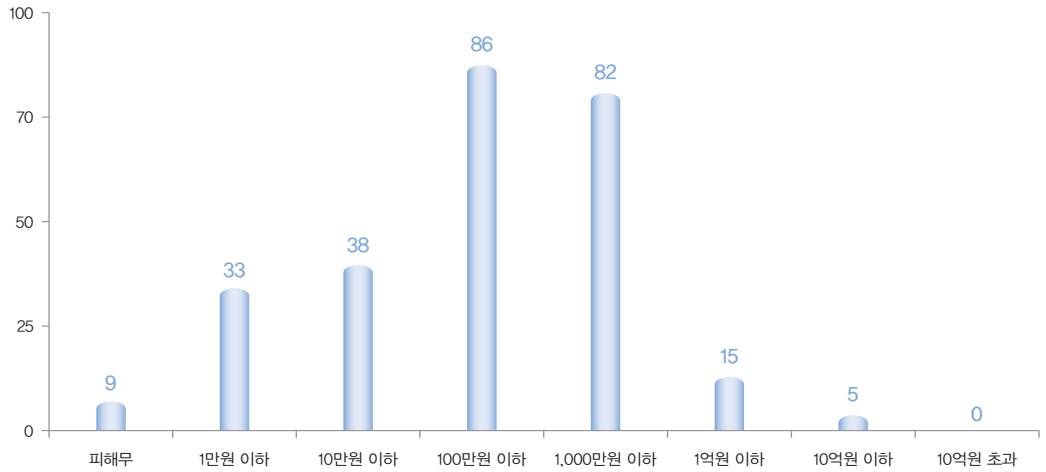
- 강도범죄 범행도구에서 무소지 비율이 55.4%로 절반 이상의 강도범죄에서 범행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범행도구를 사용한 경우 중 칼(24.8%)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구(4.5%), 독극물과 몽둥이(2.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공범유무에 따른 범행도구를 살펴보면, 단독범의 경우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비율(51.8%)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칼(28.9%), 공구(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범이 있는 경우 역시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비율(56.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칼(18.2%), 공구(5.7%)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범유무에 따른 상위 범행도구 유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 40〉 강도범죄 피해금액

(단위: 건, %)

피해금액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9	1.8
1만원 이하	33	6.7
10만원 이하	38	7.7
100만원 이하	86	17.4
1,000만원 이하	82	16.6
1억원 이하	15	3.0
10억원 이하	5	1.0
10억원 초과	0	0.0
미상	227	45.9
계	495	100.0

(단위: 건)



〈그림 - 47〉 강도범죄 피해정도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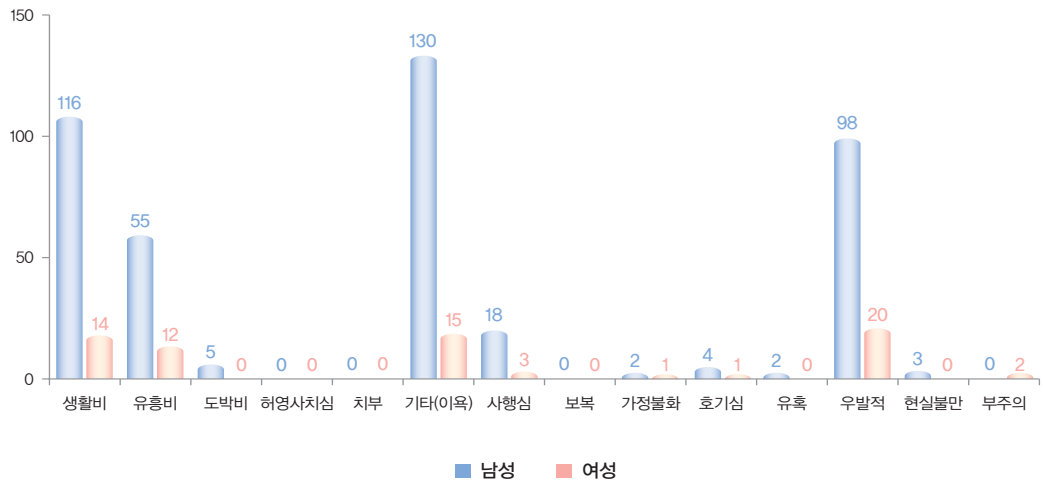
- 강도범죄로 인한 피해정도는 100만원 이하(17.4%)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00만원 이하(16.6%), 10만원 이하(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강도범죄 사건으로 보고되었으나 피해금액이 없는 경우도 1.8%로 나타남

〈표 - 41〉 강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명, %)

구분 / 범행동기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116	17.9	14	14.1	130	17.4
유흥비	55	8.5	12	12.1	67	9.0
도박비	5	0.8	0	0.0	5	0.7
허영사치심	0	0.0	0	0.0	0	0.0
치부	0	0.0	0	0.0	0	0.0
기타(이욕)	130	20.0	15	15.2	145	19.4
사행심	18	2.8	3	3.0	21	2.8
보복	0	0.0	0	0.0	0	0.0
가정불화	2	0.3	1	1.0	3	0.4
호기심	4	0.6	1	1.0	5	0.7
유혹	2	0.3	0	0.0	2	0.3
우발적	98	15.1	20	20.2	118	15.8
현실불만	3	0.5	0	0.0	3	0.4
부주의	0	0.0	2	2.0	2	0.3
기타	138	21.3	15	15.2	153	20.5
미상	78	12.0	16	16.2	94	12.6
계	649	100.0	99	100.0	748	100.0

(단위: 명)



〈그림 - 48〉 강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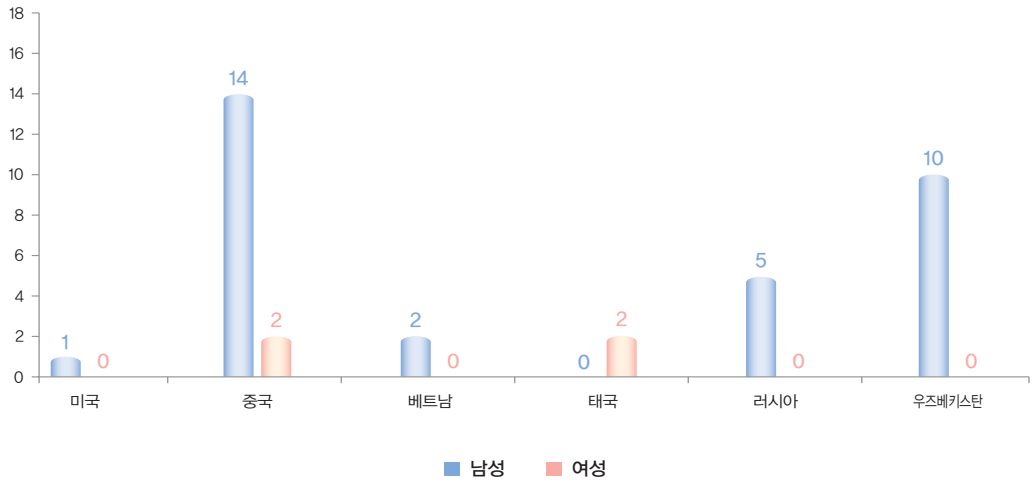
- 강도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이욕(19.4%)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비(17.4%), 우발적(15.8%), 유흥비(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 강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기타이욕(20.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비(17.9%), 우발적(15.1%), 유흥비(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 강도범죄자의 경우는 우발적(20.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이욕(15.2%), 생활비(14.1%), 유흥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42〉 강도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명, %)

구분 / 국적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602	92.8	95	96.0	697	93.2
미국	1	0.2	0	0.0	1	0.1
중국	14	2.2	2	2.0	16	2.1
일본	0	0.0	0	0.0	0	0.0
몽골	0	0.0	0	0.0	0	0.0
베트남	2	0.3	0	0.0	2	0.3
태국	0	0.0	2	2.0	2	0.3
대만	0	0.0	0	0.0	0	0.0
러시아	5	0.8	0	0.0	5	0.7
방글라데시	0	0.0	0	0.0	0	0.0
스리랑카	0	0.0	0	0.0	0	0.0
우즈베키스탄	10	1.5	0	0.0	10	1.3
인도네시아	0	0.0	0	0.0	0	0.0
캐나다	0	0.0	0	0.0	0	0.0
키르기스스탄	0	0.0	0	0.0	0	0.0
필리핀	0	0.0	0	0.0	0	0.0
파키스탄	0	0.0	0	0.0	0	0.0
기타	15	2.3	0	0.0	15	2.0
계	649	100.0	99	100.0	748	100.0

(단위: 명)



〈그림 - 49〉 강도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 기타 제외 제외)

- 강도범죄자는 한국인이 697명(93.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이 51명(6.8%)로 나타남. 외국인 국적 중에서 중국이 16명(2.1%)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10명(1.3%), 러시아 5명(0.7%), 베트남과 태국 2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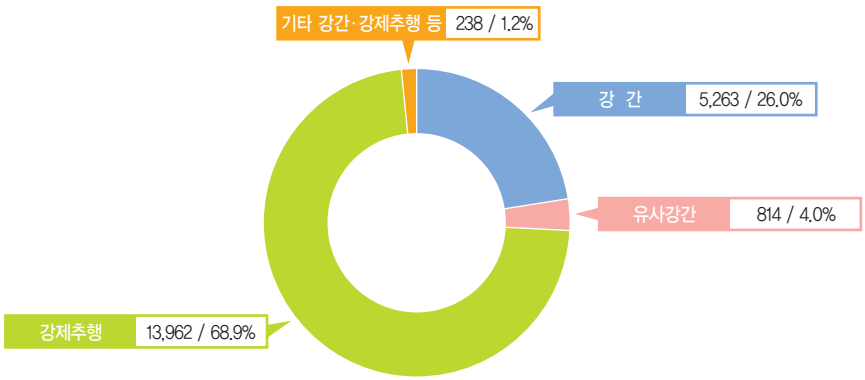
다. 강간 · 강제추행

〈표 - 43〉 강간 · 강제추행범죄의 유형별 분포

(단위: 건, %)

죄 종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강간	5,263	26.0
유사강간	814	4.0
강제추행	13,962	68.9
기타 강간 강제추행 등	238	1.2
계	20,277	100.0

(단위: 건/%)



〈그림 - 50〉 강간 · 강제추행범죄 유형별 분포

- 강간 · 강제추행범죄는 유형별로 강간(유사강간 포함)과 강제추행, 기타 강간 · 강제추행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강간과 강제추행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음
- 전체 강간·강제추행범죄 중 강제추행이 68.9%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강간이 26.0%, 유사강간과 기타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각각 4.0%와 1.2%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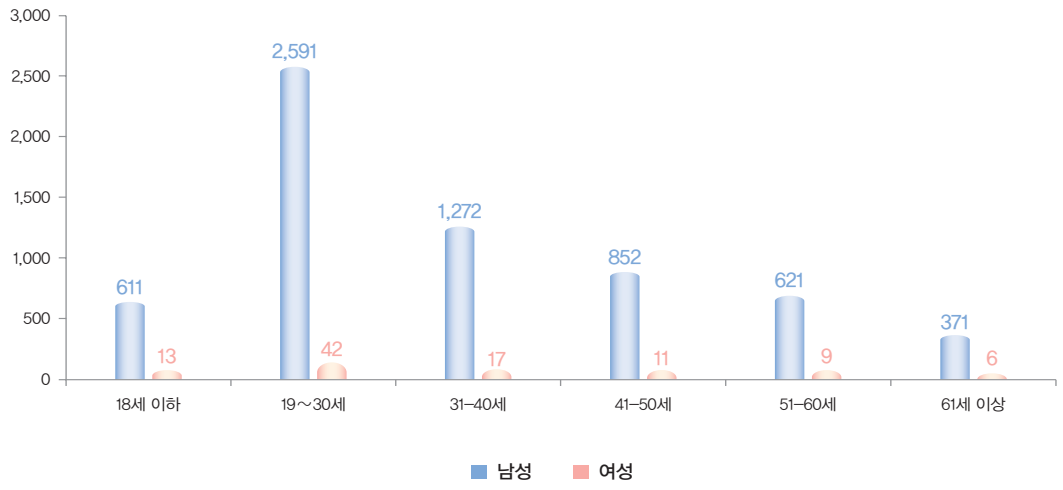
1) 강간(유사강간포함)

〈표 - 44〉 강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8세 이하	611	9.7	13	13.0	624	9.7
19 - 30세	2,591	41.0	42	42.0	2,633	41.0
31 - 40세	1,272	20.1	17	17.0	1,289	20.1
41 - 50세	852	13.5	11	11.0	863	13.4
51 - 60세	621	9.8	9	9.0	630	9.8
61세 이상	371	5.9	6	6.0	377	5.9
미상	9	0.1	2	2.0	11	0.2
계	6,327	100.0	100	100.0	6,427	100.0

(단위: 명)



〈그림 - 51〉 강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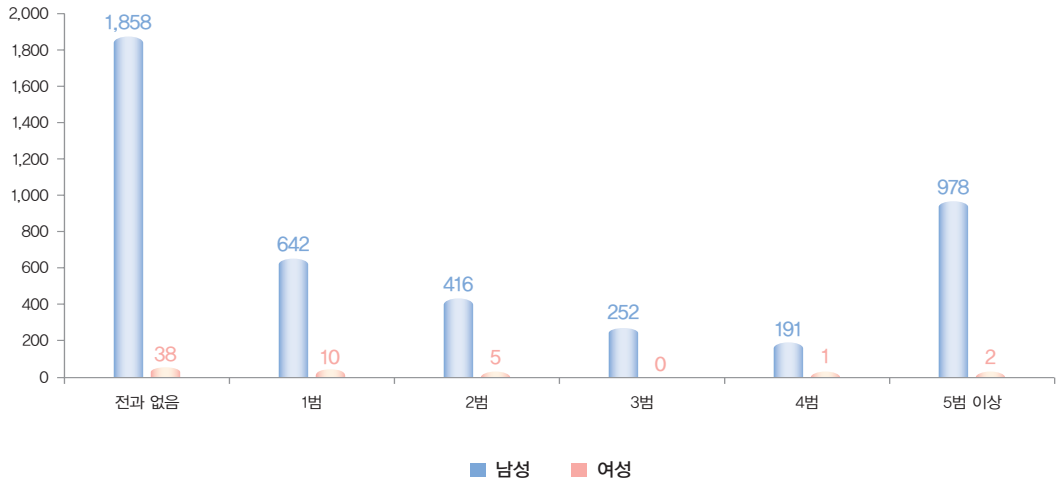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 중 남성이 98.4%이고, 여성은 1.6%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 강간범죄자의 연령분포를 확인한 결과, 20대(41.0%)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0.1%), 40대(13.4%), 50대(9.8%), 61세 이상(5.9%) 순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강간범죄자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 45〉 강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명, %)

구 분 / 전과횟수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1,858	29.4	38	38.0	1,896	29.5
1범	642	10.1	10	10.0	652	10.1
2범	416	6.6	5	5.0	421	6.6
3범	252	4.0	0	0.0	252	3.9
4범	191	3.0	1	1.0	192	3.0
5범 이상	978	15.5	2	2.0	980	15.2
미상	1,990	31.5	44	44.0	2,034	31.6
계	6,327	100.0	100	100.0	6,427	100.0

(단위: 명)



〈그림 - 52〉 강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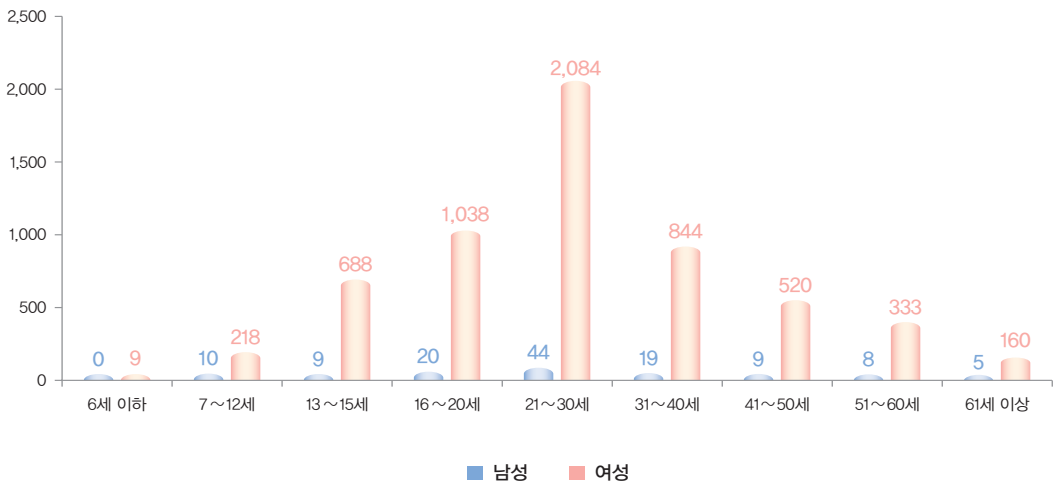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의 전과횟수는 남성의 경우 초범의 비율이 29.4%인 것에 반해 전과자(1범 이상) 비율이 39.2%로 나타나 재범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과가 없는 범죄자 비율은 여성(38.0%)이 남성(29.4%)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반해, 전과 5범 이상인 강간범죄자는 남성이 15.5%로 여성의 2.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표 - 46〉 강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건,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0	0.0	9	0.2	0	0.0	9	0.1
7 - 12세	10	8.0	218	3.7	0	0.0	228	3.8
13 - 15세	9	7.3	688	11.7	0	0.0	697	11.5
16 - 20세	20	16.1	1,038	17.6	0	0.0	1,058	17.4
21 - 30세	44	35.5	2,084	35.3	0	0.0	2,128	35.0
31 - 40세	19	15.3	844	14.3	0	0.0	863	14.2
41 - 50세	9	7.3	520	8.8	0	0.0	529	8.7
51 - 60세	8	6.5	333	5.6	0	0.0	341	5.6
61세 이상	5	4.0	160	2.7	0	0.0	165	2.7
미상	1	0.8	5	0.1	53	100.0	59	1.0
계	125	100.0	5,899	100.0	53	100.0	6,077	100.0

(단위: 건)



〈그림 - 53〉 강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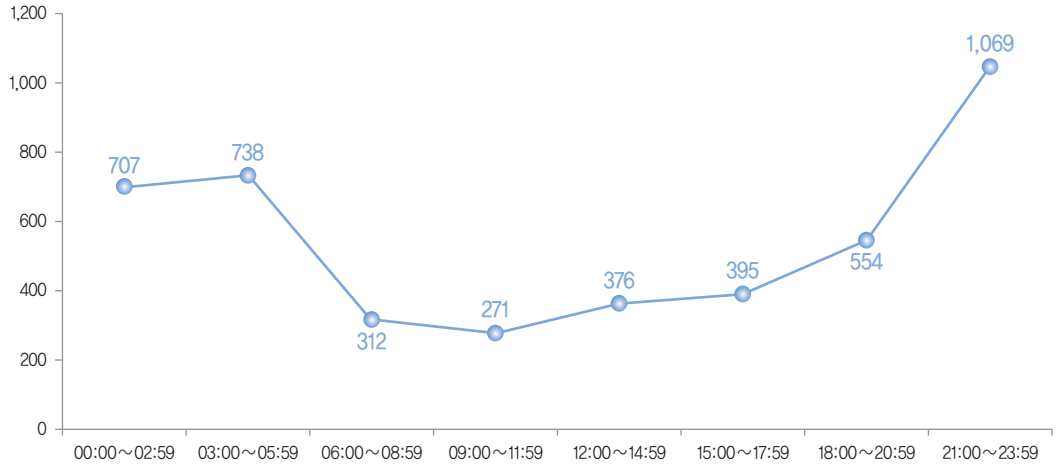
- 강간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97.1%)이며, 남성은 2.1%에 불과함(성별 불상자는 0.9%)
- 여성 피해자 중 20대(35.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16–20세(17.6%), 30대(14.3%), 13–15세(11.7%), 40대(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 피해자(전체 125명)의 경우 20대(35.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16–20세(16.1%), 30대(15.3%), 13–15세(7.3%), 40대(7.3%) 순으로 여성 피해자와 유사하게 나타남. 여성 피해자와 남성 피해자 모두 20대 비율이 가장 높음

〈표 - 47〉 강간범죄 발생시간

(단위: 건, %)

발생시간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707	11.6
03 : 00 ~ 05 : 59	738	12.1
06 : 00 ~ 08 : 59	312	5.1
09 : 00 ~ 11 : 59	271	4.5
12 : 00 ~ 14 : 59	376	6.2
15 : 00 ~ 17 : 59	395	6.5
18 : 00 ~ 20 : 59	554	9.1
21 : 00 ~ 23 : 59	1,069	17.6
미상	1,655	27.2
계	6,077	100.0

(단위: 건)



〈그림 - 54〉 강간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 강간범죄는 21:00~23:59 시간대(17.6%)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03:00~05:59 시간대(12.1%), 00:00~02:59 시간대(11.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강간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함
- 강간범죄는 06:00~08:59 시간대부터 18:00~20:59 시간대까지는 10% 미만의 낮은 비율로 발생하였고, 21:00~23:59 시간대 급격히 증가하여 03:00~05:59 시간대까지 높은 발생 비율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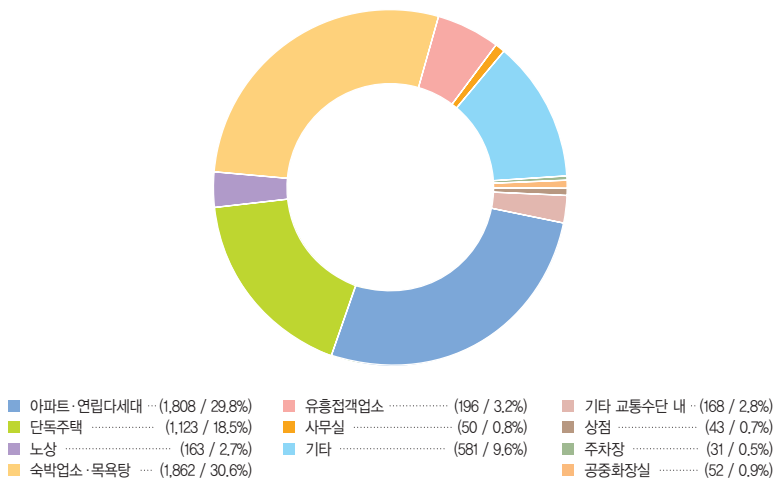
〈표 - 48〉 강간범죄 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 발생장소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 · 연립다세대	1,808	29.8
단독주택	1,123	18.5
노상	163	2.7
공중화장실	52	0.9
상점	43	0.7
숙박업소 · 목욕탕	1,862	30.6
유흥접객업소	196	3.2
사무실	50	0.8
기타 교통수단 내	168	2.8
주차장	31	0.5
기타*	581	9.6
계	6,077	100.0

※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재분류함

(단위: 건/%)



〈그림 - 55〉 강간범죄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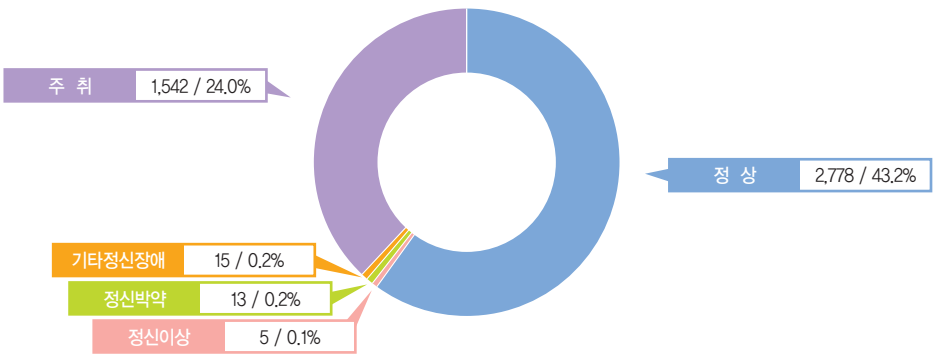
- 강간범죄의 발생장소는 숙박업소 · 목욕탕(30.6%)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 연립다세대(29.8%), 단독주택(18.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거주(거소)지에서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 외에도 유흥접객업소(3.2%), 기타 교통수단 내(2.8%) 등의 장소에서 강간범죄가 발생함

〈표 - 49〉 강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명, %)

정신상태 \ 구 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2,778	43.2
정신이상	5	0.1
정신박약	13	0.2
기타정신장애	15	0.2
주취	1,542	24.0
미상	2,074	32.3
계	6,427	100.0

(단위: 명/%)



〈그림 - 56〉 강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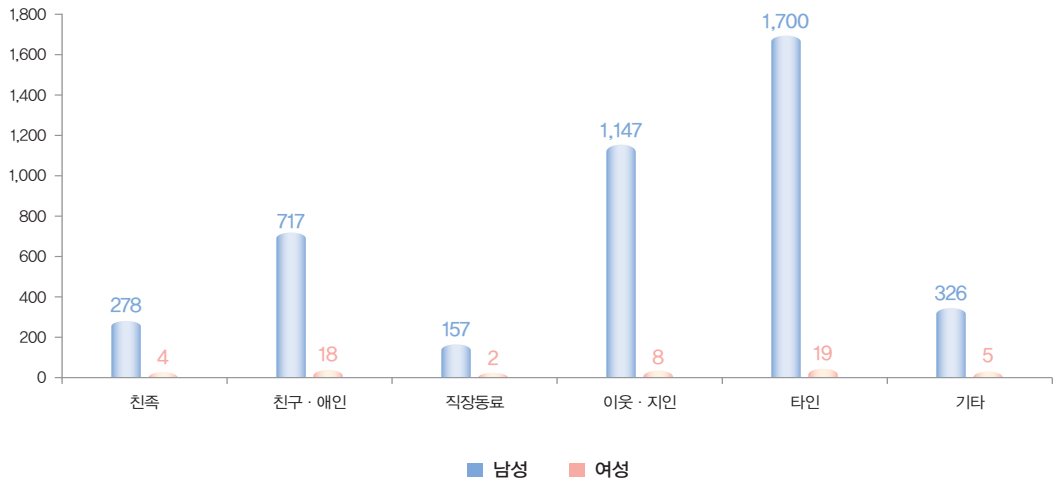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는 정상(43.2%)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0.5%(정신이상 0.1%, 정신박약 0.2%, 기타정신장애 0.2%)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주취상태에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4.0%로 나타남

〈표 - 50〉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 피해자와의 관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278	4.4	4	4.0	282	4.4
친구 · 애인	717	11.3	18	18.0	735	11.4
직장동료	157	2.5	2	2.0	159	2.5
이웃 · 지인	1,147	18.1	8	8.0	1,155	18.0
타인	1,700	26.9	19	19.0	1,719	26.7
기타	326	5.2	5	5.0	331	5.2
미상	2,002	31.6	44	44.0	2,046	31.8
계	6,327	100.0	100	100.0	6,427	100.0

(단위: 명)



〈그림 - 57〉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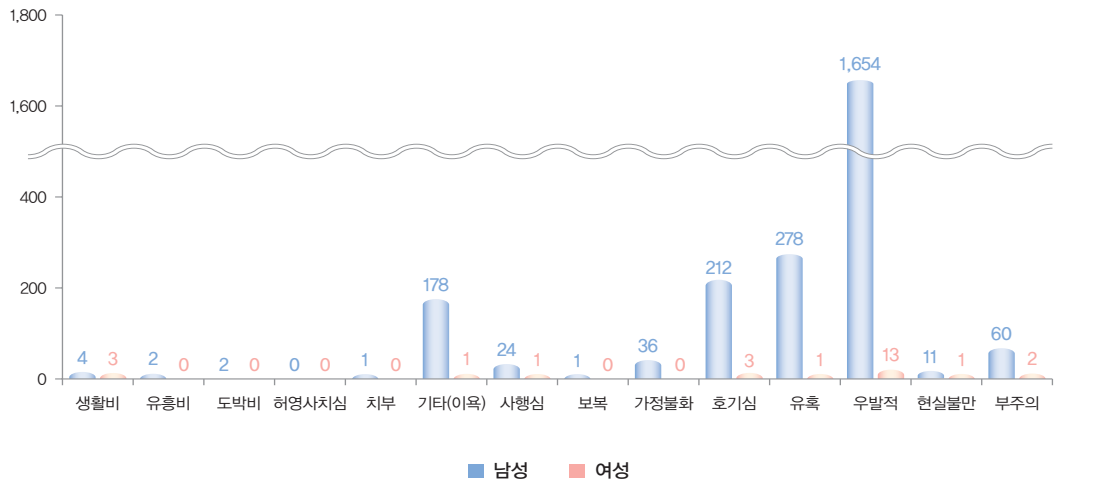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이 대상인 경우(26.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웃 · 지인(18.0%), 친구 · 애인(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 강간범죄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타인인 경우(26.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지인(18.1%), 친구·애인(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 강간범죄자의 경우 남성 강간범죄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타인(19.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애인(18.0%), 이웃·지인(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51〉 강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명, %)

구 분 / 피해자와의 관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4	0.1	3	3.0	7	0.1
유흥비	2	0.0	0	0.0	2	0.0
도박비	2	0.0	0	0.0	2	0.0
허영사치심	0	0.0	0	0.0	0	0.0
치부	1	0.0	0	0.0	1	0.0
기타(이욕)	178	2.8	1	1.0	179	2.8
사행심	24	0.4	1	1.0	25	0.4
보복	1	0.0	0	0.0	1	0.0
가정불화	36	0.6	0	0.0	36	0.6
호기심	212	3.4	3	3.0	215	3.3
유혹	278	4.4	1	1.0	279	4.3
우발적	1,654	26.1	13	13.0	1,667	25.9
현실불만	11	0.2	1	1.0	12	0.2
부주의	60	0.9	2	2.0	62	1.0
기타	1,845	29.2	31	31.0	1,876	29.2
미상	2,019	31.9	44	44.0	2,063	32.1
계	6,327	100.0	100	100.0	6,427	100.0

(단위: 명)



〈그림 - 58〉 강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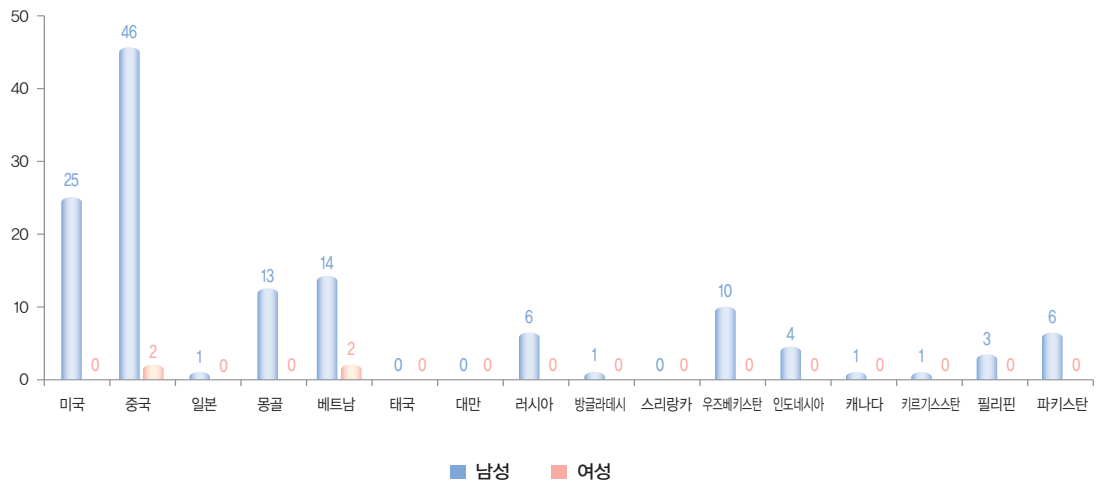
- 강간범죄의 범행동기로 우발적인 경우(2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혹(4.3%), 호기심(3.3%), 기타 이욕(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강간범죄자의 대부분을 남성이 차지하기 때문에 남성의 범행동기가 전체 강간사건의 범행동기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남. 여성 강간범죄자(전체 100명)의 경우에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율(13.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호기심(3.0%), 생활비(3.0%), 부주의(2.0%), 기타(이욕), 현실불만, 사행심(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52〉 강간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명, %)

구분 / 국적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6,156	97.3	96	96.0	6,252	97.3
미국	25	0.4	0	0.0	25	0.4
중국	46	0.7	2	2.0	48	0.7
일본	1	0.0	0	0.0	1	0.0
몽골	13	0.2	0	0.0	13	0.2
베트남	14	0.2	2	2.0	16	0.2
태국	0	0.0	0	0.0	0	0.0
대만	0	0.0	0	0.0	0	0.0
러시아	6	0.1	0	0.0	6	0.1
방글라데시	1	0.0	0	0.0	1	0.0
스리랑카	0	0.0	0	0.0	0	0.0
우즈베키스탄	10	0.2	0	0.0	10	0.2
인도네시아	4	0.1	0	0.0	4	0.1
캐나다	1	0.0	0	0.0	1	0.0
키르키스스탄	1	0.0	0	0.0	1	0.0
필리핀	3	0.0	0	0.0	3	0.0
파키스탄	6	0.1	0	0.0	6	0.1
기타	40	0.6	0	0.0	40	0.6
계	6,327	100.0	100	100.0	6,427	100.0

(단위: 명)



〈그림 - 59〉 강간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 기타 제외)

- 강간범죄자는 한국인이 97.3%(6,252명)이고, 외국인이 2.7%(175명)로 나타남. 외국인 국적 중 중국이 48명(0.7%)으로 가장 많고, 미국 25명(0.4%), 베트남 16명(0.2%), 몽골 13명(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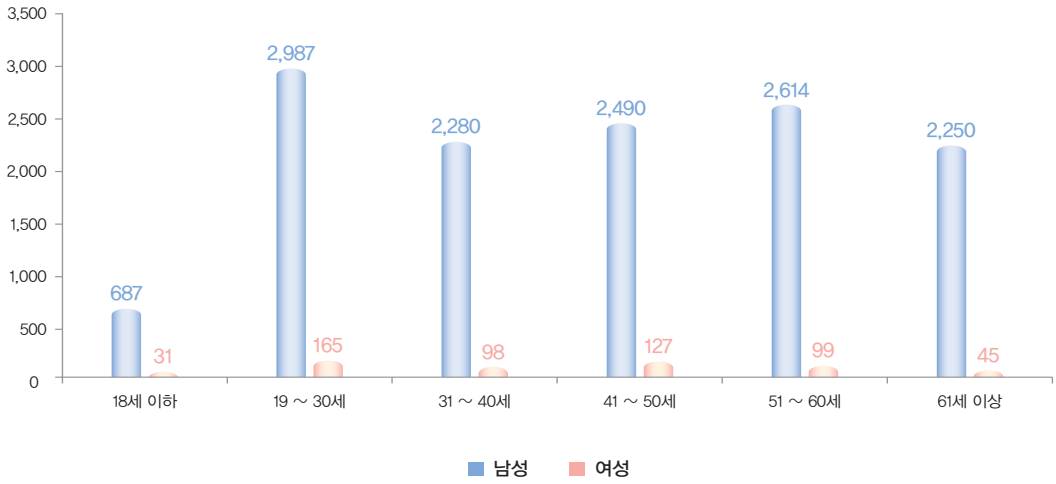
2) 강제추행

〈표 - 53〉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8세 이하	687	5.2	31	5.4	718	5.2
19 - 30세	2,987	22.4	165	28.9	3,152	22.7
31 - 40세	2,280	17.1	98	17.2	2,378	17.1
41 - 50세	2,490	18.7	127	22.3	2,617	18.9
51 - 60세	2,614	19.6	99	17.4	2,713	19.5
61세 이상	2,250	16.9	45	7.9	2,295	16.5
미상	4	0.0	5	0.9	9	0.1
계	13,312	100.0	570	100.0	13,882	100.0

(단위: 명)



〈그림 - 60〉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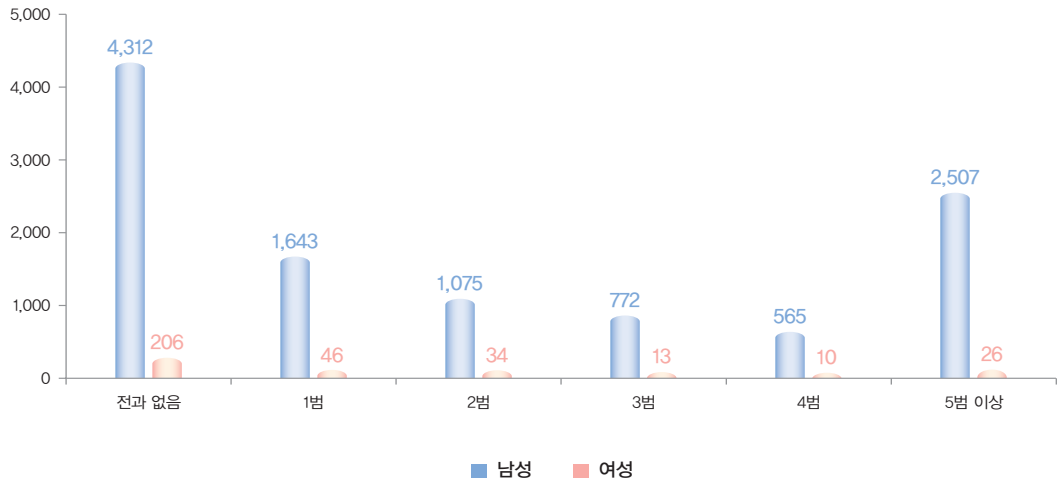
- 전체 강제추행 범죄자 중 남성이 95.9%이고, 여성이 4.1%로 강제추행 범죄자의 절대 다수는 남성으로 나타남
- 강제추행 범죄자의 연령대는 20대(22.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대(19.5%), 40대(18.9%), 30대(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54〉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 전과횟수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4,312	32.4	206	36.1	4,518	32.5
1범	1,643	12.3	46	8.1	1,689	12.2
2범	1,075	8.1	34	6.0	1,109	8.0
3범	772	5.8	13	2.3	785	5.7
4범	565	4.2	10	1.8	575	4.1
5범 이상	2,507	18.8	26	4.6	2,533	18.2
미상	2,438	18.3	235	41.2	2,673	19.3
계	13,312	100.0	570	100.0	13,882	100.0

(단위: 명)



〈그림 - 61〉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 강제추행범죄자의 성별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이 32.4%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36.1%로 나타남. 다만, 여성의 경우 전과 미상의 비율이 41.2%로, 남성의 18.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5범 이상 전과자 비율은 남성이 18.8%로 여성의 4.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 55〉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건,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11	0.9	88	0.7	0	0.0	99	0.7
7 - 12세	101	8.1	601	4.9	0	0.0	702	5.0
13 - 15세	58	4.6	491	4.0	0	0.0	549	3.9
16 - 20세	169	13.5	1,926	15.6	0	0.0	2,095	15.0
21 - 30세	408	32.7	4,761	38.6	2	0.5	5,171	37.0
31 - 40세	212	17.0	1,780	14.4	0	0.0	1,992	14.3
41 - 50세	121	9.7	1,167	9.5	0	0.0	1,288	9.2
51 - 60세	112	9.0	946	7.7	0	0.0	1,058	7.6
61세 이상	55	4.4	545	4.4	0	0.0	600	4.3
미상	1	0.1	22	0.2	385	99.5	408	2.9
계	1,248	100.0	12,327	100.0	387	100.0	13,962	100.0

(단위: 건)



〈그림 - 62〉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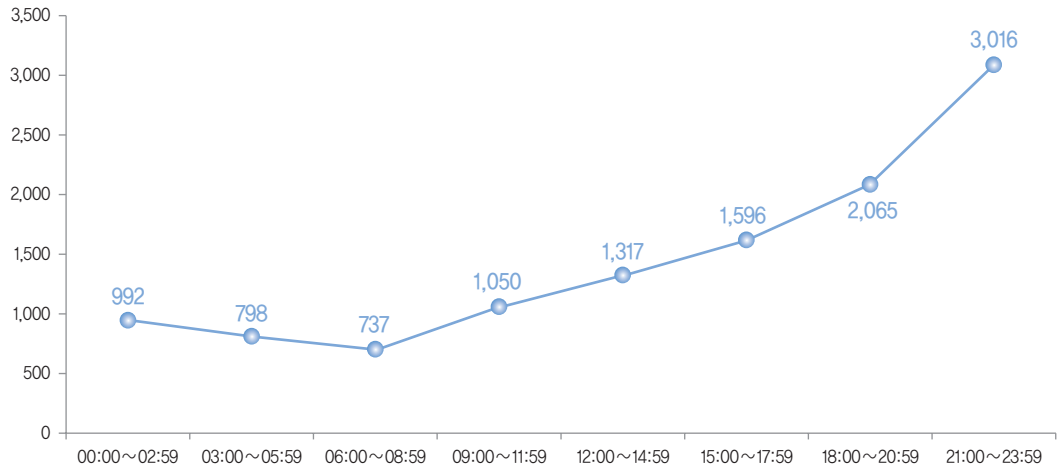
- 강제추행 피해자는 여성이 88.3%로 남성의 8.9%(성별 불상자는 2.8%)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강제추행 피해자는 20대(37.0%)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16–20세(15.0%), 30대(14.3%), 40대(9.2%), 50대(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12세 이하(7–12세)와 15세 이하(13–15세)의 피해자 비율이 각각 5.0%와 3.9%로 나타남

〈표 - 56〉 강제추행범죄 발생시간

(단위: 건, %)

발생시간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992	7.1
03 : 00 ~ 05 : 59	798	5.7
06 : 00 ~ 08 : 59	737	5.3
09 : 00 ~ 11 : 59	1,050	7.5
12 : 00 ~ 14 : 59	1,317	9.4
15 : 00 ~ 17 : 59	1,596	11.4
18 : 00 ~ 20 : 59	2,065	14.8
21 : 00 ~ 23 : 59	3,016	21.6
미상	2,391	17.1
계	13,962	100.0

(단위: 건)



〈그림 - 63〉 강제추행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 강제추행범죄는 21:00~23:59 시간대(21.6%)에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18:00~20:59 시간대(14.8%), 15 : 00 ~ 17 : 59 시간대(11.4%), 12:00~14:59 시간대(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강제추행범죄는 06:00~08:59 시간대에 가장 적게 발생하였고, 21:00~23:59 시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자정(00시)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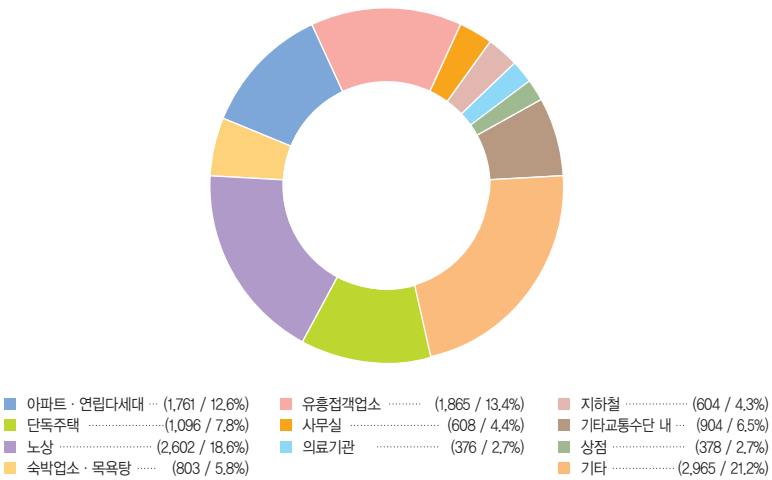
〈표 - 57〉 강제추행범죄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 · 연립다세대	1,761	12.6
단독주택	1,096	7.8
노상	2,602	18.6
지하철	604	4.3
상점	378	2.7
숙박업소 · 목욕탕	803	5.8
유흥접객업소	1,865	13.4
사무실	608	4.4
기타 교통수단 내	904	6.5
의료기관	376	2.7
기타*	2,965	21.2
계	13,962	100.0

※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재분류함

(단위: 건/%)



〈그림 - 64〉 강제추행범죄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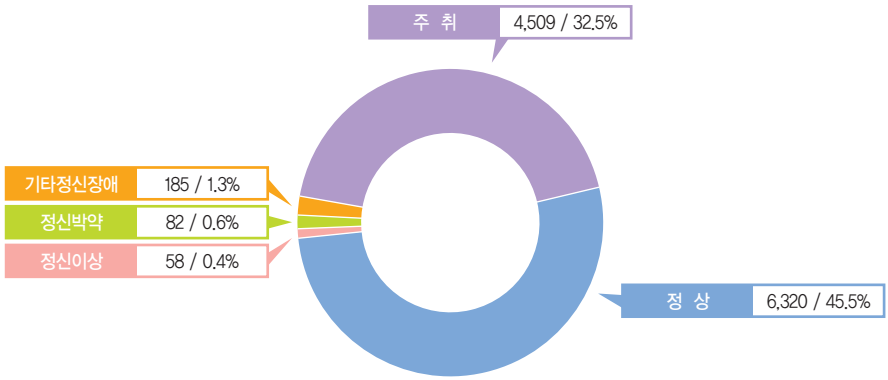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의 발생장소는 노상(18.6%)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흥접객업소(13.4%), 아파트 · 연립다세대(12.6%), 단독주택(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기타 교통수단 내(6.5%), 숙박업소 · 목욕탕(5.8%), 사무실(4.4%), 지하철(4.3%)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강제추행범죄가 발생함

〈표 - 58〉 강제추행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명, %)

정신상태 \ 구 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6,320	45.5
정신이상	58	0.4
정신박약	82	0.6
기타정신장애	185	1.3
주취	4,509	32.5
미상	2,728	19.7
계	13,882	100.0

(단위: 명/%)



〈그림 - 65〉 강제추행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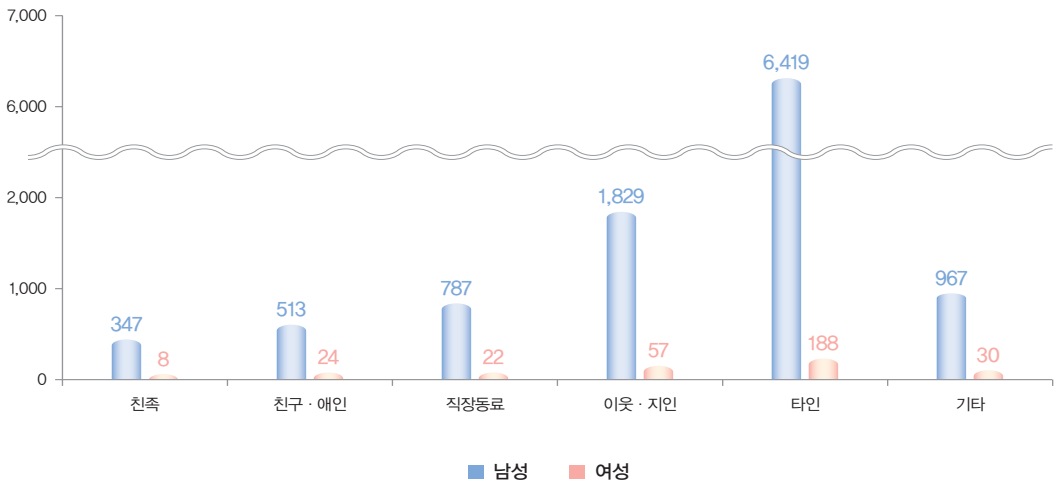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자의 정신상태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45.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의 비율은 2.3%(정신이상 0.4%, 정신박약 0.6%, 기타정신장애 1.3%)에 불과하였음
- 주취상태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32.5%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 59〉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명, %)

구 분 / 피해자와의 관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347	2.6	8	1.4	355	2.6
친구 · 애인	513	3.9	24	4.2	537	3.9
직장동료	787	5.9	22	3.9	809	5.8
이웃 · 지인	1,829	13.7	57	10.0	1,886	13.6
타인	6,419	48.2	188	33.0	6,607	47.6
기타	967	7.3	30	5.3	997	7.2
미상	2,450	18.4	241	42.3	2,691	19.4
계	13,312	100.0	570	100.0	13,882	100.0

(단위: 명)



〈그림 - 66〉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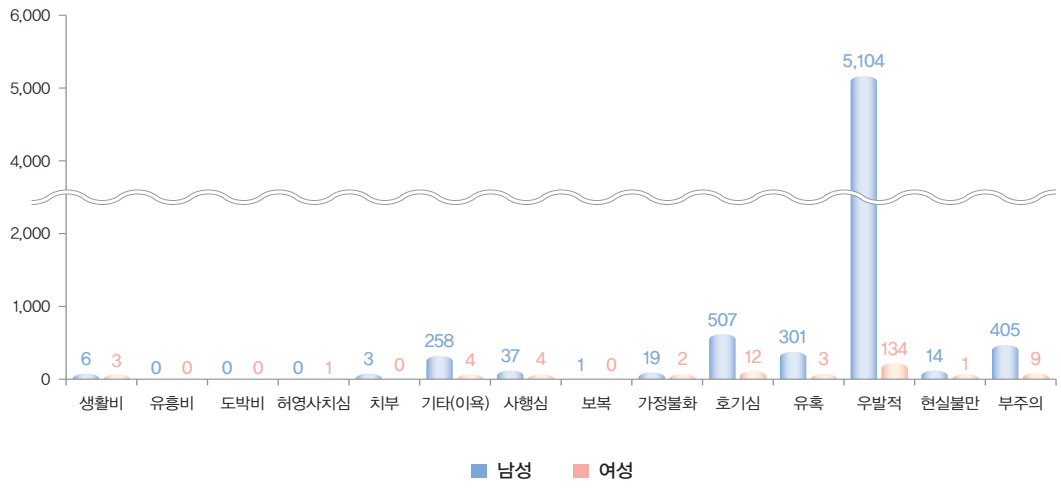
- 강제추행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타인인 경우(47.6%)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지인(13.6%), 직장동료(5.8%) 순으로 나타남
- 성별을 구분하여 강제추행 범죄자와 피해자간 관계를 살펴본 바, 전체 강제추행 범죄와 동일하게 타인(남성 48.2%, 여성 33.0%), 이웃·지인(남성 13.7%, 여성 10.0%) 순이었음. 그 다음으로 남성은 직장동료(5.9%), 여성은 친구 · 애인(4.2%)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강제추행범죄와 남성 범죄자의 구성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표 - 60〉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명, %)

구분 / 범행동기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6	0.0	3	0.5	9	0.1
유흥비	0	0.0	0	0.0	0	0.0
도박비	0	0.0	0	0.0	0	0.0
허영사치심	0	0.0	1	0.2	1	0.0
치부	3	0.0	0	0.0	3	0.0
기타(이욕)	258	1.9	4	0.7	262	1.9
사행심	37	0.3	4	0.7	41	0.3
보복	1	0.0	0	0.0	1	0.0
가정불화	19	0.1	2	0.4	21	0.2
호기심	507	3.8	12	2.1	519	3.7
유혹	301	2.3	3	0.5	304	2.2
우발적	5,104	38.3	134	23.5	5,238	37.7
현실불만	14	0.1	1	0.2	15	0.1
부주의	405	3.0	9	1.6	414	3.0
기타	4,182	31.4	149	26.1	4,331	31.2
미상	2,475	18.6	248	43.5	2,723	19.6
계	13,312	100.0	570	100.0	13,882	100.0

(단위: 명)



〈그림 - 67〉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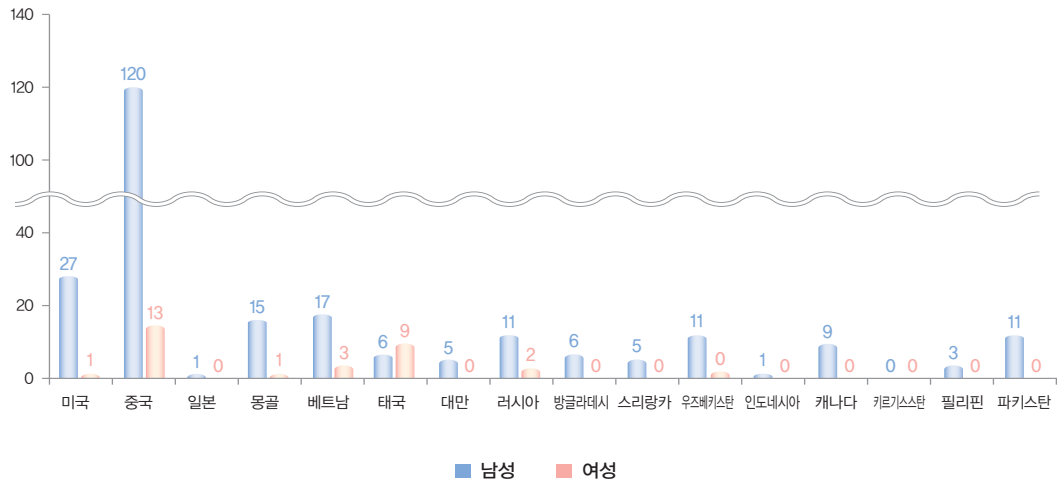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37.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호기심(3.7%), 부주의(3.0%), 유혹(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강제추행 범죄자 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전체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유사한 비율을 유지함. 여성 강제추행범죄자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경우(23.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호기심(2.1%), 부주의(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61〉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명, %)

구분 / 국적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12,991	97.6	539	94.6	13,530	97.5
미국	27	0.2	1	0.2	28	0.2
중국	120	0.9	13	2.3	133	1.0
일본	1	0.0	0	0.0	1	0.0
몽골	15	0.1	1	0.2	16	0.1
베트남	17	0.1	3	0.5	20	0.1
태국	6	0.0	9	1.6	15	0.1
대만	5	0.0	0	0.0	5	0.0
러시아	11	0.1	2	0.4	13	0.1
방글라데시	6	0.0	0	0.0	6	0.0
스리랑카	5	0.0	0	0.0	5	0.0
우즈베키스탄	11	0.1	0	0.0	11	0.1
인도네시아	1	0.0	0	0.0	1	0.0
캐나다	9	0.1	0	0.0	9	0.1
키르기스스탄	0	0.0	0	0.0	0	0.0
필리핀	3	0.0	0	0.0	3	0.0
파키스탄	11	0.1	0	0.0	11	0.1
기타	73	0.5	2	0.4	75	0.5
계	13,312	100.0	570	100.0	13,882	100.0

(단위: 명)



〈그림 - 68〉 강제추행범죄자 국적 (한국 · 기타제외)

- 강제추행범죄자는 한국인이 13,530명(97.5%)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외국인은 352명(2.5%)에 불과함. 외국인 국적 중에서는 중국이 133명(1.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28명(0.2%), 베트남 20명(0.1%), 몽골 16명(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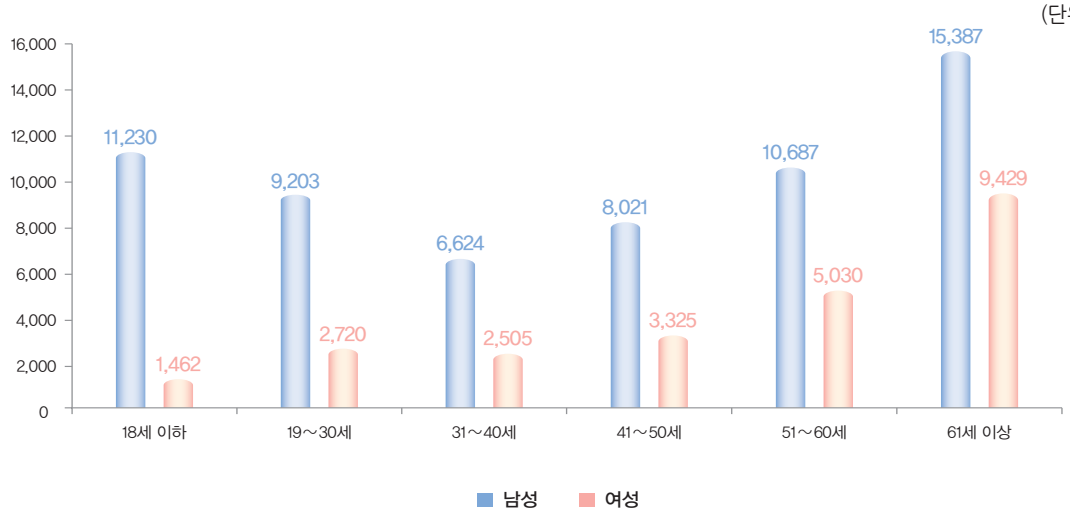
라. 절도

〈표 - 62〉 절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18세 이하	11,230	18.4	1,462	6.0	12,692	14.8
19 - 30세	9,203	15.0	2,720	11.1	11,923	13.9
31 - 40세	6,624	10.8	2,505	10.2	9,129	10.7
41 - 50세	8,021	13.1	3,325	13.6	11,346	13.2
51 - 60세	10,687	17.5	5,030	20.5	15,717	18.3
61세 이상	15,387	25.1	9,429	38.5	24,816	29.0
미상	46	0.1	18	0.1	64	0.1
계	61,198	100.0	24,489	100.0	85,687	100.0

(단위: 명)



〈그림 - 69〉 절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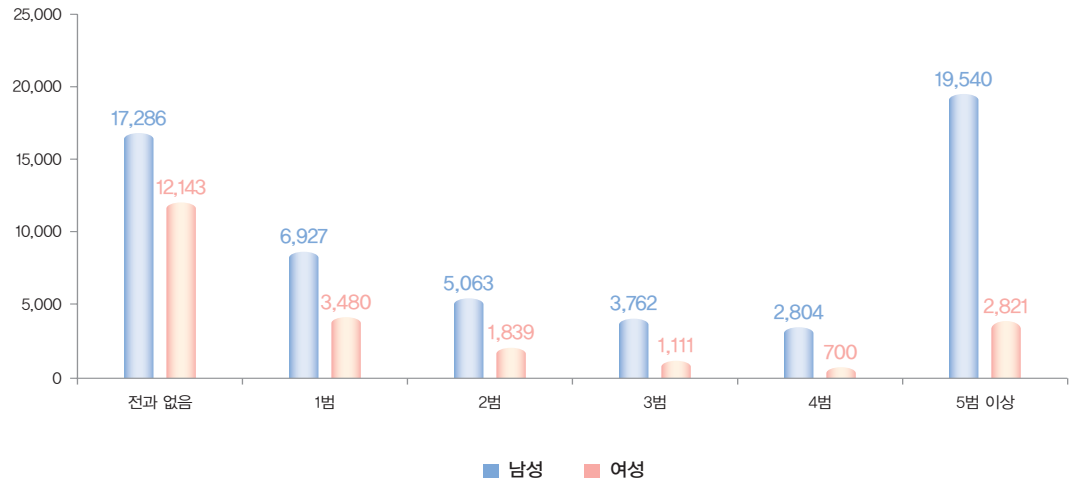
- 전체 절도범죄자 중 남성이 71.4%로 여성의 28.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61세 이상(29.0%)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18.3%), 18세 이하(14.8%), 20대(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절도범죄자 중 남성의 경우 61세 이상이 25.1%, 18세 이하 18.4%로 나이가 매우 많거나 아주 어릴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61세 이상이 38.5%, 50대가 20.5%로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게 나타남. 남녀 모두 61세 이상의 절도범죄자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 63〉 절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명, %)

구 분 / 전과횟수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17,286	28.2	12,143	49.6	29,429	34.3
1범	6,927	11.3	3,480	14.2	10,407	12.1
2범	5,063	8.3	1,839	7.5	6,902	8.1
3범	3,762	6.1	1,111	4.5	4,873	5.7
4범	2,804	4.6	700	2.9	3,504	4.1
5범 이상	19,540	31.9	2,821	11.5	22,361	26.1
미상	5,816	9.5	2,395	9.8	8,211	9.6
계	61,198	100.0	24,489	100.0	85,687	100.0

(단위: 명)



〈그림 - 70〉 절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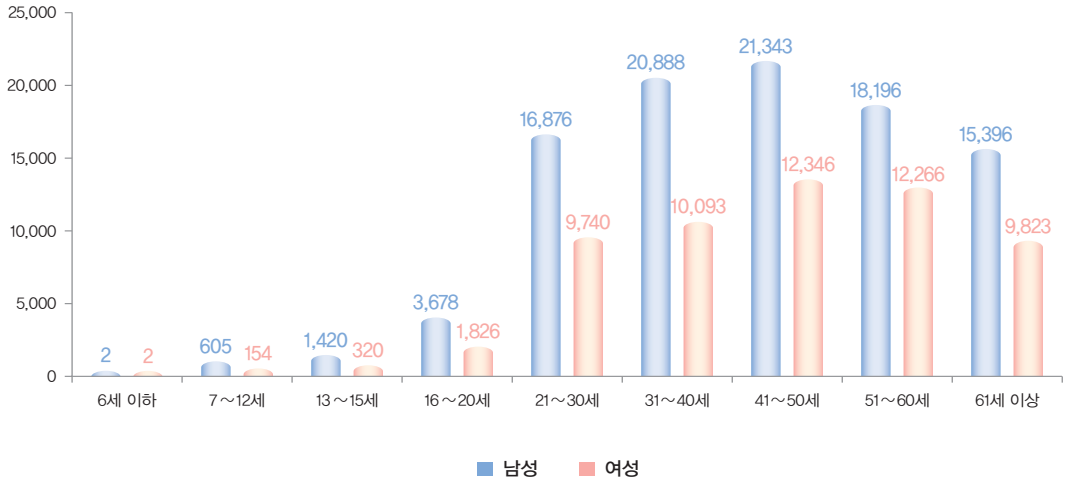
- 절도범죄자의 전과횟수에 대해 살펴보면, 전과가 없는 경우는 34.3%이고, 전과 5범 이상은 26.1%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전과자(1범 이상)의 비율이 62.2%로 전과가 없는 범죄자 비율 28.2%보다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해 여성은 전과가 없는 범죄자가 49.6%로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함
- 전과 5범 이상의 범죄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1.9%인데 비해 여성은 11.5%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상임

〈표 - 64〉 절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건,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2	0.0	2	0.0	0	0.0	4	0.0
7 - 12세	605	0.6	154	0.3	3	0.0	762	0.5
13 - 15세	1,420	1.4	320	0.6	3	0.0	1,743	1.0
16 - 20세	3,678	3.7	1,826	3.2	5	0.0	5,509	3.3
21 - 30세	16,876	17.1	9,740	17.2	4	0.0	26,620	16.0
31 - 40세	20,888	21.2	10,093	17.8	0	0.0	30,981	18.6
41 - 50세	21,343	21.7	12,346	21.8	2	0.0	33,691	20.2
51 - 60세	18,196	18.5	12,266	21.7	1	0.0	30,463	18.3
61세 이상	15,396	15.5	9,823	17.3	2	0.0	25,221	15.2
미상	65	0.1	77	0.1	11,273	99.8	11,415	6.9
계	98,469	100.0	56,647	100.0	11,293	100.0	166,409	100.0

(단위: 건)



〈그림 - 71〉 절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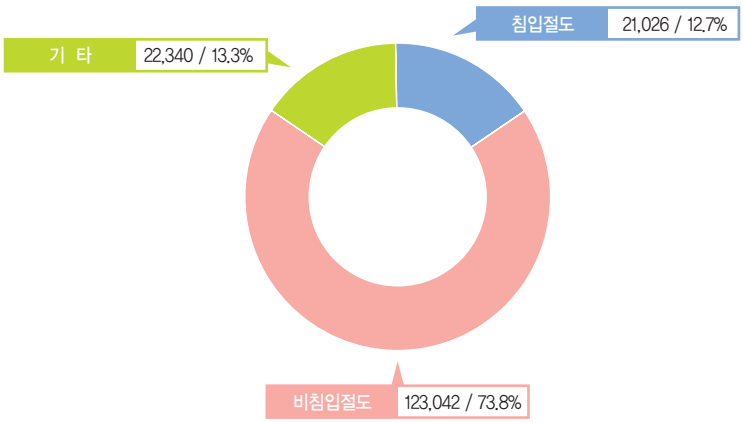
- 절도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59.2%, 여성이 34.0%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절도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성별 불상자는 6.8%)
- 절도범죄 피해자 연령대는 40대(20.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18.6%), 50대(18.3%), 20대(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65〉 절도범죄 수법

(단위: 건, %)

범죄수법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침입절도	빈집 절도	3,177	1.9
	사무실 절도	829	0.5
	공장 절도	269	0.2
	상점 절도	4,941	3.0
	숙박업소 절도	287	0.2
	기타 침입절도	11,523	6.9
비침입절도	소매치기 절도	272	0.2
	날치기 절도	67	0.0
	기타 치기절도	4,061	2.4
	들치기 절도	12,862	7.7
	속임수 절도	1,035	0.6
	기타 비침입절도	104,745	62.9
기타	차량절도	2,404	1.4
	오토바이 절도	3,146	1.9
	자전거 절도	12,148	7.3
	축산물 절도	246	0.1
	기타 절도	4,396	2.6
미상		1	0.0
계		166,409	100.0

(단위: 건/%)



〈그림 - 72〉 절도범죄 수법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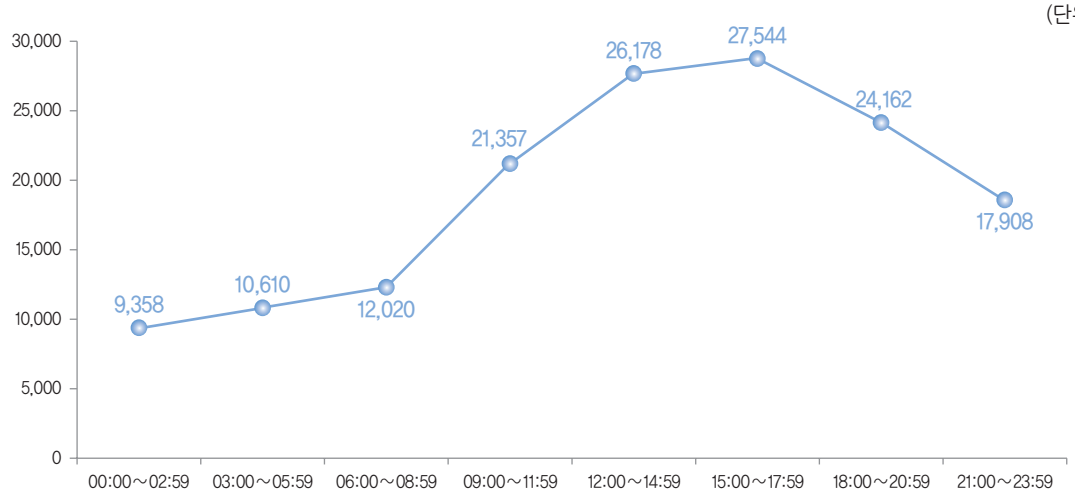
- 절도범죄 수법을 상위 수준에서 살펴보면, 비침입절도(73.8%)가 높게 나타났고, 기타 절도 유형(13.3%)과 침입절도(12.7%)가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침입절도 중에서 상점 절도(3.0%)와 빈집 절도(1.9%)의 발생 비율이 높고, 비침입절도 중에서는 들치기 절도(7.7%), 그리고 기타 절도유형 중에는 자전거 절도(7.3%)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 66〉 절도범죄 발생시간

(단위: 건, %)

발생시간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9,358	5.6
03 : 00 ~ 05 : 59	10,610	6.4
06 : 00 ~ 08 : 59	12,020	7.2
09 : 00 ~ 11 : 59	21,357	12.8
12 : 00 ~ 14 : 59	26,178	15.7
15 : 00 ~ 17 : 59	27,544	16.6
18 : 00 ~ 20 : 59	24,162	14.5
21 : 00 ~ 23 : 59	17,908	10.8
미상	17,272	10.4
계	166,409	100.0

(단위: 건)



〈그림 - 73〉 절도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 절도범죄는 15:00~17:59 시간대(16.6%)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2:00~14:59 시간대(15.7%), 18:00~20:59 시간대(14.5%) 등의 순으로 범죄가 발생함
- 절도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활동이 적은 새벽(00:00~05:59 시간대)부터 아침(06 : 00~08 : 59 시간대)까지 발생이 적다가 09 : 00 ~ 11 : 59 시간대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5 : 00~17 : 59 시간대까지 꾸준히 증가함. 다른 지표범죄들과 달리 18 : 00 ~ 20 : 59 시간대부터 발생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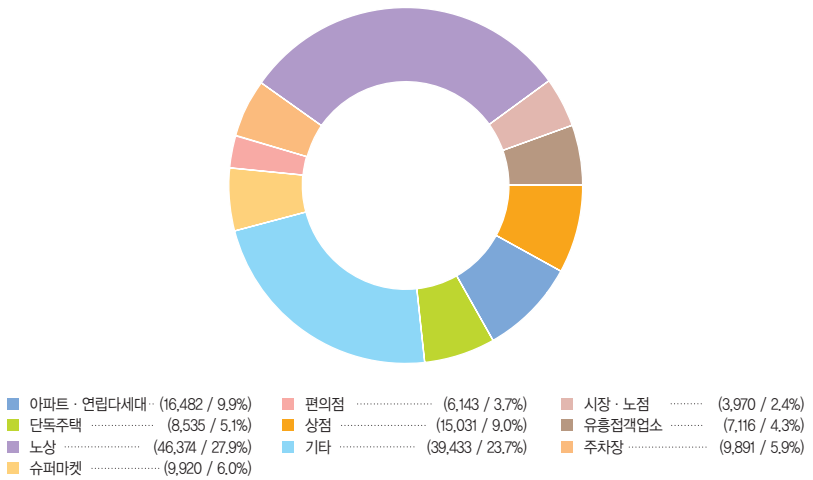
〈표 - 67〉 절도범죄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 · 연립다세대	16,482	9.9
단독주택	8,535	5.1
노상	46,374	27.9
슈퍼마켓	9,920	6.0
상점	15,031	9.0
숙박업소 · 목욕탕	3,970	2.4
유흥접객업소	7,116	4.3
편의점	6,143	3.7
금융기관	3,514	2.1
주차장	9,891	5.9
기타*	39,433	23.7
계	166,409	100.0

※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재분류함

(단위: 건/%)



〈그림 - 74〉 절도범죄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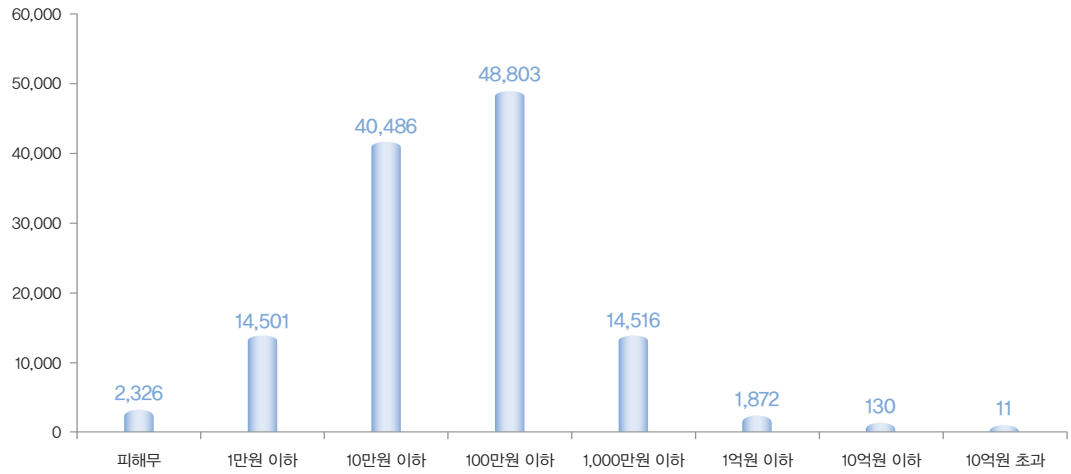
- 절도범죄의 발생장소는 노상(27.9%)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9.9%), 상점(9.0%), 슈퍼마켓(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주차장(5.9%), 단독주택(5.1%), 유흥접객업소(4.3%), 편의점(3.7%)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절도범죄가 발생함

〈표 - 68〉 절도범죄 피해금액

(단위: 건, %)

피해금액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2,326	1.4
1만원 이하	14,501	8.7
10만원 이하	40,486	24.3
100만원 이하	48,803	29.3
1,000만원 이하	14,516	8.7
1억원 이하	1,872	1.1
10억원 이하	130	0.1
10억원 초과	11	0.0
미상	43,764	26.3
계	166,409	100.0

(단위: 건)



〈그림 - 75〉 절도범죄 피해금액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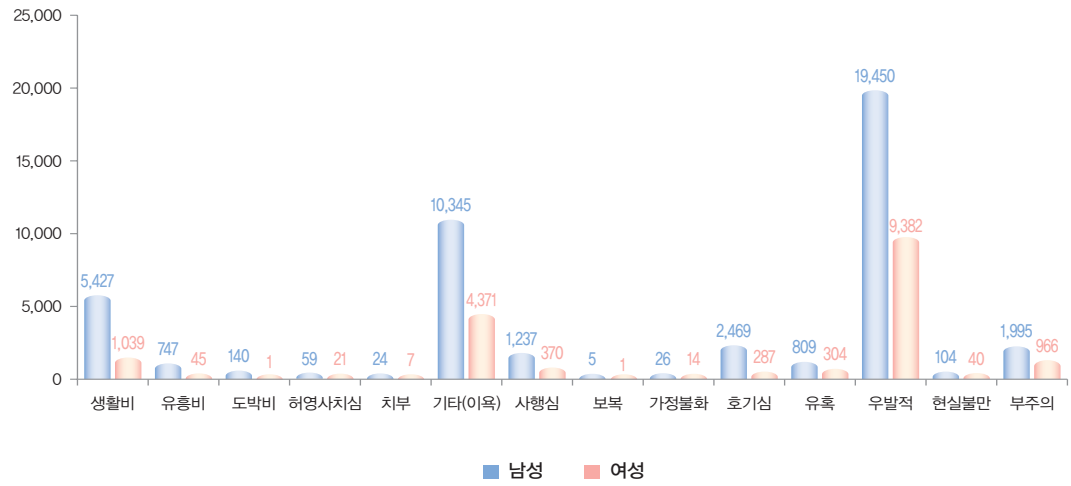
- 절도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29.3%)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만원 이하(24.3%), 1,000만원 이하(8.7%)와 1만원 이하(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69〉 절도 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명, %)

구 분 / 범행동기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5,427	8.9	1,039	4.2	6,466	7.5
유흥비	747	1.2	45	0.2	792	0.9
도박비	140	0.2	1	0.0	141	0.2
허영사치심	59	0.1	21	0.1	80	0.1
치부	24	0.0	7	0.0	31	0.0
기타(이욕)	10,345	16.9	4,371	17.8	14,716	17.2
사행심	1,237	2.0	370	1.5	1,607	1.9
보복	5	0.0	1	0.0	6	0.0
가정불화	26	0.0	14	0.1	40	0.0
호기심	2,469	4.0	287	1.2	2,756	3.2
유혹	809	1.3	304	1.2	1,113	1.3
우발적	19,450	31.8	9,382	38.3	28,832	33.6
현실불만	104	0.2	40	0.2	144	0.2
부주의	1,995	3.3	966	3.9	2,961	3.5
기타	12,475	20.4	5,215	21.3	17,690	20.6
미상	5,886	9.6	2,426	9.9	8,312	9.7
계	61,198	100.0	24,489	100.0	85,687	100.0

(단위: 명)



〈그림 - 76〉 절도 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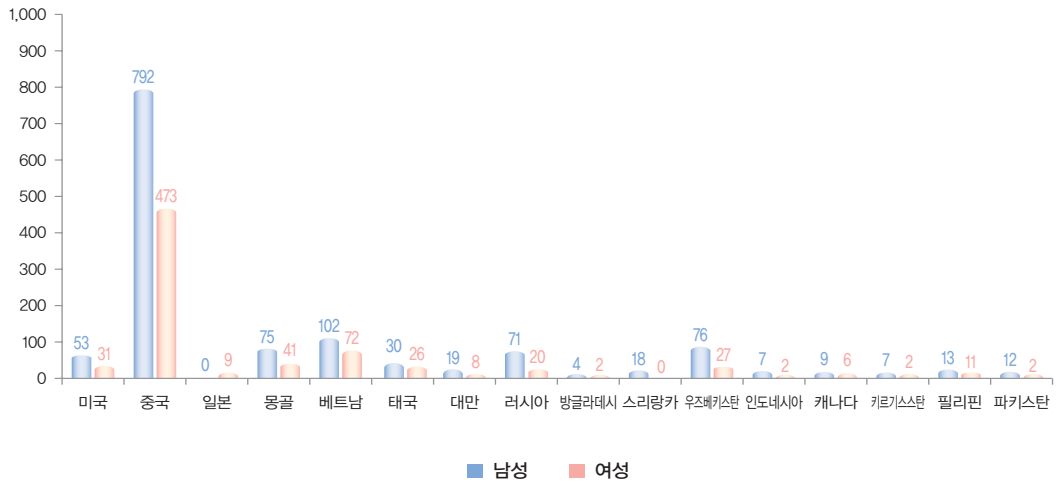
- 절도범죄자의 범행 동기는 우발적인 경우(33.6%)가 가장 높고, 그 다음 기타이욕(17.2%), 생활비(7.5%), 부주의(3.5%), 호기심(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 절도범죄자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31.8%)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이욕(16.9%), 생활비(8.9%), 호기심(4.0%), 부주의(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 절도범죄자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 3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이욕) (17.8%), 생활비(4.2%), 부주의(3.9%), 사행심(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70〉 절도 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명, %)

구분 / 국적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59,645	97.5	23,700	96.8	83,345	97.3
미국	53	0.1	31	0.1	84	0.1
중국	792	1.3	473	1.9	1,265	1.5
일본	0	0.0	9	0.0	9	0.0
몽골	75	0.1	41	0.2	116	0.1
베트남	102	0.2	72	0.3	174	0.2
태국	30	0.0	26	0.1	56	0.1
대만	19	0.0	8	0.0	27	0.0
러시아	71	0.1	20	0.1	91	0.1
방글라데시	4	0.0	2	0.0	6	0.0
스리랑카	18	0.0	0	0.0	18	0.0
우즈베키스탄	76	0.1	27	0.1	103	0.1
인도네시아	7	0.0	2	0.0	9	0.0
캐나다	9	0.0	6	0.0	15	0.0
키르기스스탄	7	0.0	2	0.0	9	0.0
필리핀	13	0.0	11	0.0	24	0.0
파키스탄	12	0.0	2	0.0	14	0.0
기타	265	0.4	57	0.2	322	0.4
계	61,198	100.0	24,489	100.0	85,687	100.0

(단위: 명)



〈그림 - 77〉 절도 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 기타제외)

- 절도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이 83,345명(97.3%)이었고, 외국은 2,342명(2.7%)임. 외국인 국적 중에서 중국이 1,265명(1.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74명(0.2%), 몽골 116명(0.1%), 우즈베키스탄 103명(0.1%), 러시아 91명(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마.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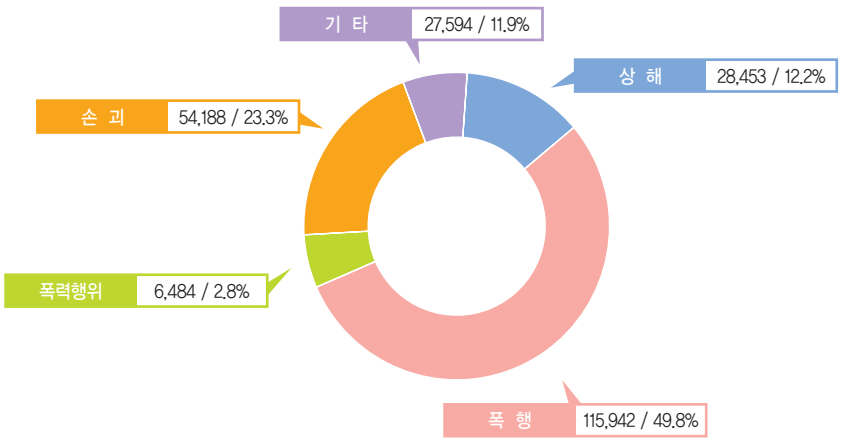
〈표 - 71〉 폭력범죄의 유형별 분포

(단위: 건, %)

죄 종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상해	28,453	12.2
폭행	115,942	49.8
폭력행위	6,484	2.8
손괴	54,188	23.3
기타*	27,594	11.9
계	232,661	100.0

※ 기타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단위: 건/%)



〈그림 - 78〉 폭력범죄의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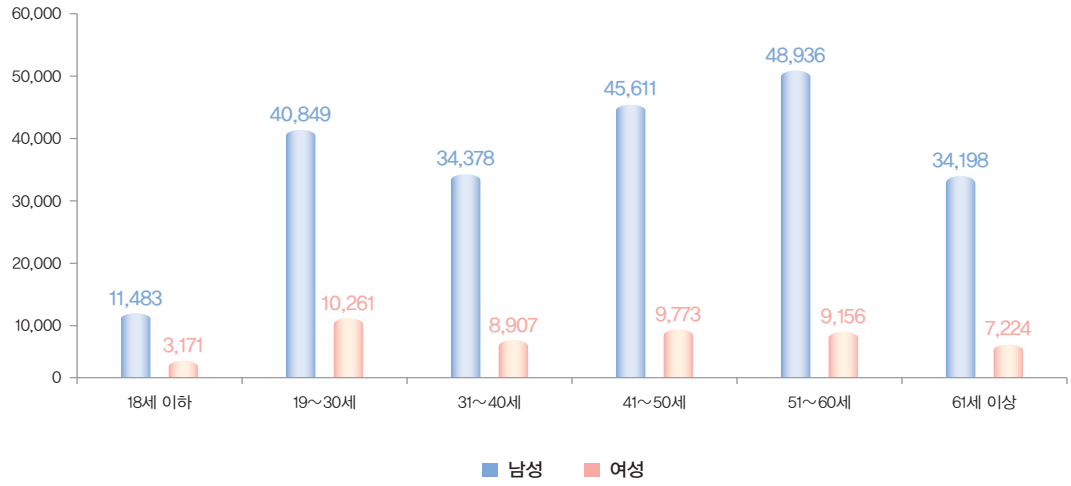
- 폭력범죄의 경우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손괴죄, 기타 폭력범죄를 포함함
- 폭력범죄의 유형은 폭행(49.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손괴(23.3%), 상해(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72〉 폭력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8세 이하	11,483	5.3	3,171	6.5	14,654	5.5
19 - 30세	40,849	18.9	10,261	21.1	51,110	19.3
31 - 40세	34,378	15.9	8,907	18.3	43,285	16.4
41 - 50세	45,611	21.1	9,773	20.1	55,384	21.0
51 - 60세	48,936	22.7	9,156	18.8	58,092	22.0
61세 이상	34,198	15.9	7,224	14.9	41,422	15.7
미상	201	0.1	81	0.2	282	0.1
계	215,656	100.0	48,573	100.0	264,229	100.0

(단위: 명)



〈그림 - 79〉 폭력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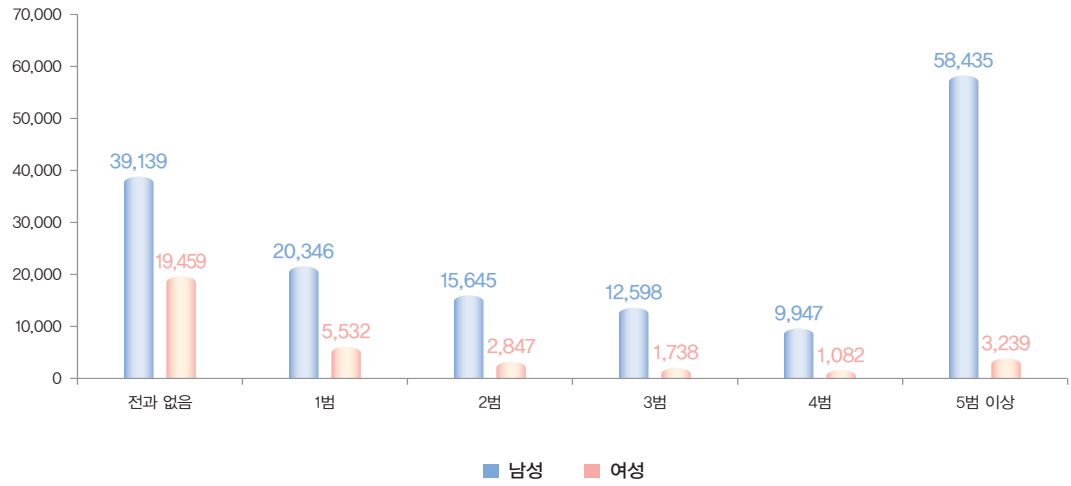
- 전체 폭력범죄자 중에서 남성은 81.6%, 여성의 18.4%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함. 연령대별로는 50대(22.0%)가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21.0%), 20대(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 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50대(22.7%)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대(21.1%), 20대(19–30세,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20대(21.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대(20.1%), 50대(18.8%), 30대(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73〉 폭력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명, %)

구 분 / 전과횟수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39,139	18.1	19,459	40.1	58,598	22.2
1범	20,346	9.4	5,532	11.4	25,878	9.8
2범	15,645	7.3	2,847	5.9	18,492	7.0
3범	12,598	5.8	1,738	3.6	14,336	5.4
4범	9,947	4.6	1,082	2.2	11,029	4.2
5범 이상	58,435	27.1	3,239	6.7	61,674	23.3
미상	59,546	27.6	14,676	30.2	74,222	28.1
계	215,656	100.0	48,573	100.0	264,229	100.0

(단위: 명)



〈그림 - 80〉 폭력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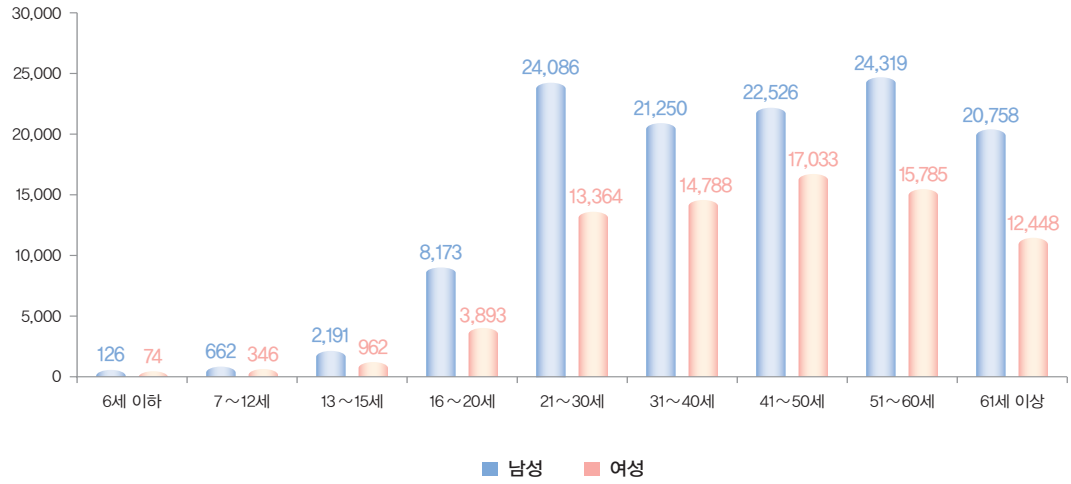
- 폭력범죄자의 전과횟수에 대해 살펴보면, 전과가 없는 경우는 22.2%였고, 전과가 있는 경우(1범 이상)는 49.7%로 재범자의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에는 전과자의 비율이 54.2%로, 특히 5범 이상의 비율이 27.1%로 높게 나타남. 여성의 경우에는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율이 40.1%로 남성의 18.1%에 비해 매우 높았고 전과자(1범 이상)의 비율은 29.8%로 나타남

〈표 - 74〉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건,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126	0.1	74	0.1	2	0.0	202	0.1
7 - 12세	662	0.5	346	0.4	5	0.0	1,013	0.4
13 - 15세	2,191	1.8	962	1.2	1	0.0	3,154	1.4
16 - 20세	8,173	6.6	3,893	4.9	0	0.0	12,066	5.2
21 - 30세	24,086	19.4	13,364	17.0	3	0.0	37,453	16.1
31 - 40세	21,250	17.1	14,788	18.8	1	0.0	36,039	15.5
41 - 50세	22,526	18.1	17,033	21.6	0	0.0	39,559	17.0
51 - 60세	24,319	19.6	15,785	20.0	2	0.0	40,106	17.2
61세 이상	20,758	16.7	12,448	15.8	2	0.0	33,208	14.3
미상	117	0.1	45	0.1	29,699	99.9	29,861	12.8
계	124,208	100.0	78,738	100.0	29,715	100.0	232,661	100.0

(단위: 건)



〈그림 - 81〉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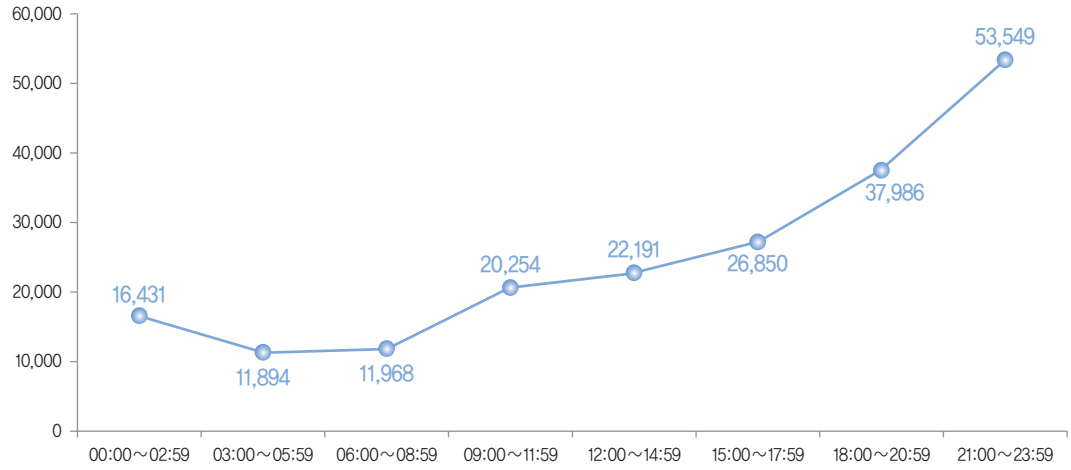
- 전체 폭력범죄 피해자 중에서 남성이 53.4%로 여성의 33.8%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성별 불상자 12.8%)
- 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대는 50대(17.2%)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대(17.0%), 20대(16.1%), 30대(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50대(19.6%), 여성의 경우 40대(21.6%)의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표 - 75〉 폭력범죄 발생시간

(단위: 건, %)

발생시간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16,431	7.1
03 : 00 ~ 05 : 59	11,894	5.1
06 : 00 ~ 08 : 59	11,968	5.1
09 : 00 ~ 11 : 59	20,254	8.7
12 : 00 ~ 14 : 59	22,191	9.5
15 : 00 ~ 17 : 59	26,850	11.5
18 : 00 ~ 20 : 59	37,986	16.3
21 : 00 ~ 23 : 59	53,549	23.0
미상	31,538	13.6
계	232,661	100.0

(단위: 건)



〈그림 - 82〉 폭력범죄 발생시간 (미상제외)

- 폭력범죄의 발생시간은 21:00~23:59 시간대(23.0%)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8:00~20:59 시간대(16.3%), 15:00~17:59 시간대(11.5%) 등의 순으로 발생함
- 새벽 03:00~05:59 시간대와 06:00~08:59 시간대(5.1%)에 발생 비율이 가장 낮았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밤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한 뒤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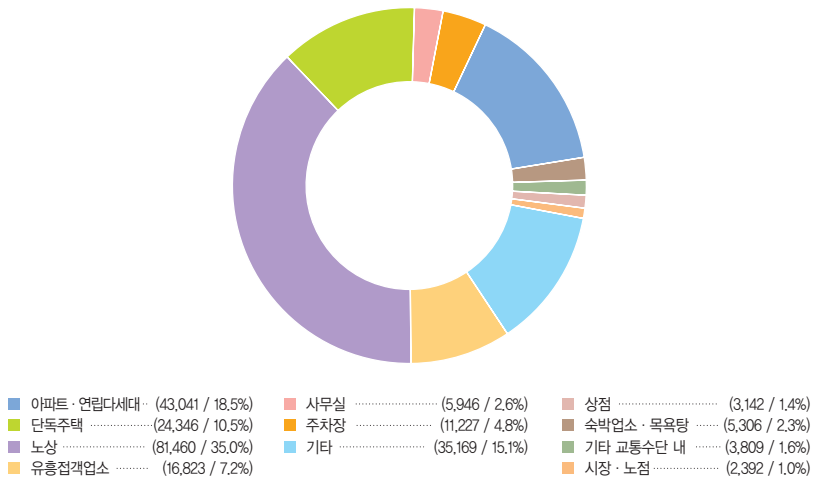
〈표 - 76〉 폭력범죄 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 발생장소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 · 연립다세대	43,041	18.5
단독주택	24,346	10.5
노상	81,460	35.0
시장·노점	2,392	1.0
상점	3,142	1.4
숙박업소 · 목욕탕	5,306	2.3
유흥접객업소	16,823	7.2
사무실	5,946	2.6
기타 교통수단 내	3,809	1.6
주차장	11,227	4.8
기타*	35,169	15.1
계	232,661	100.0

※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재분류함

(단위: 건/%)



〈그림 - 83〉 폭력범죄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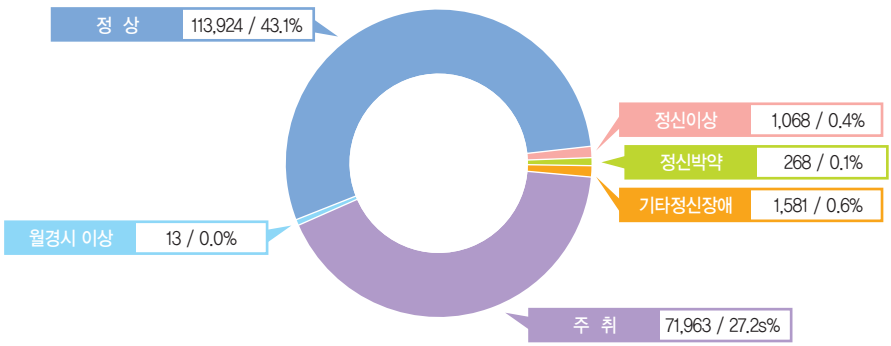
- 폭력범죄의 발생장소는 노상(35.0%)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18.5%), 단독주택(10.5%), 유흥접객업소(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주차장(4.8%), 사무실(2.6%)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함

〈표 - 77〉 폭력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명, %)

정신상태 \ 구 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113,924	43.1
정신이상	1,068	0.4
정신박약	268	0.1
기타정신장애	1,581	0.6
주취	71,963	27.2
월경시 이상	13	0.0
미상	75,412	28.5
계	264,229	100.0

(단위: 명/%)



〈그림 - 84〉 폭력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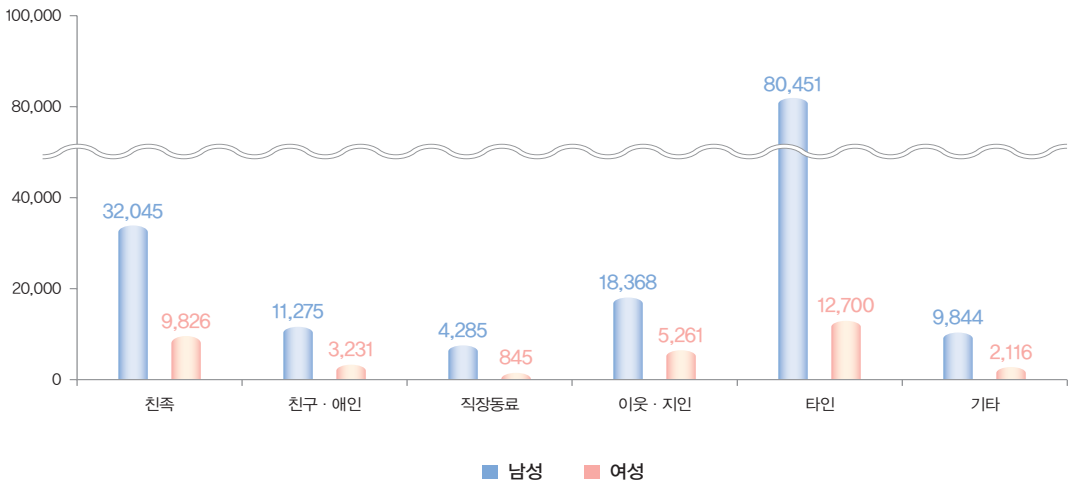
- 폭력범죄의 범행시 정신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43.1%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1.1%(정신이상 0.4%, 정신박약 0.1%, 기타정신장애 0.6%)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 주취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27.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78〉 폭력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 피해자와의 관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32,045	14.9	9,826	20.2	41,871	15.9
친구 · 애인	11,275	5.2	3,231	6.7	14,506	5.5
직장동료	4,285	2.0	845	1.7	5,130	1.9
이웃 · 지인	18,368	8.5	5,261	10.8	23,629	9.0
타인	80,451	37.3	12,700	26.1	93,151	35.3
기타	9,844	4.6	2,116	4.4	11,960	4.5
미상	59,388	27.5	14,594	30.3	73,982	28.0
계	215,656	100.0	48,573	100.0	264,229	100.0

(단위: 명)



〈그림 - 85〉 폭력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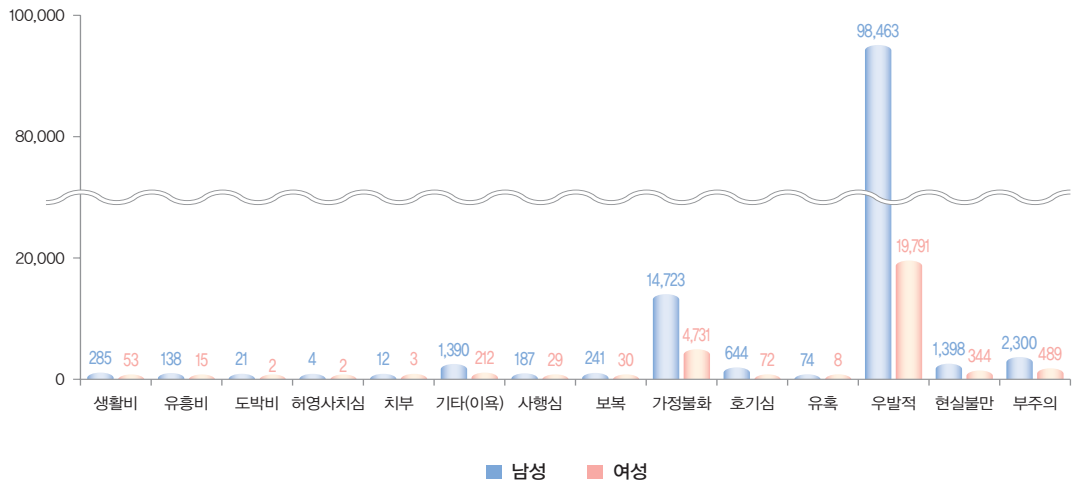
- 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35.3%)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족(15.9%), 이웃·지인(9.0%), 친구·애인(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남성(37.3%)과 여성(26.1%)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 범죄자의 경우에는 친족(20.2%), 이웃·지인(10.8%), 친구·애인(6.7%) 등 면식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 79〉 폭력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명, %)

구 분 / 범행동기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285	0.1	53	0.1	338	0.1
유흥비	138	0.1	15	0.0	153	0.1
도박비	21	0.0	2	0.0	23	0.0
허영사치심	4	0.0	2	0.0	6	0.0
치부	12	0.0	3	0.0	15	0.0
기타(이욕)	1,390	0.6	212	0.4	1,602	0.6
사행심	187	0.1	29	0.1	216	0.1
보복	241	0.1	30	0.1	271	0.1
가정불화	14,723	6.8	4,731	9.7	19,454	7.4
호기심	644	0.3	72	0.1	716	0.3
유혹	74	0.0	8	0.0	82	0.0
우발적	98,463	45.7	19,791	40.7	118,254	44.8
현실불만	1,398	0.6	344	0.7	1,742	0.7
부주의	2,300	1.1	489	1.0	2,789	1.1
기타	35,789	16.6	7,978	16.4	43,767	16.6
미상	59,987	27.8	14,814	30.5	74,801	28.3
계	215,656	100.0	48,573	100.0	264,229	100.0

(단위: 명)



〈그림 - 86〉 폭력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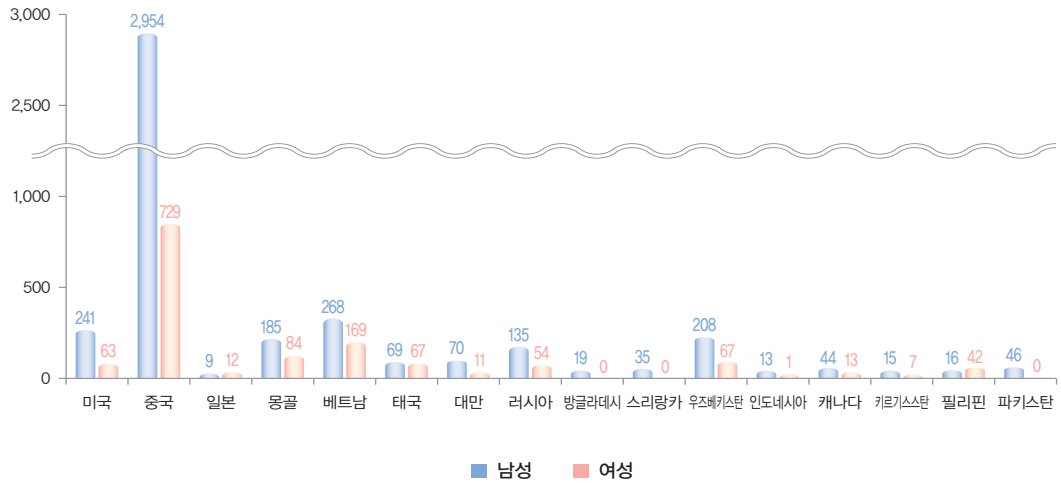
- 폭력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으로 발생(44.8%)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7.4%), 부주의(1.1%), 현실불만(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 폭력범죄자의 경우 우발적인 동기(45.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6.8%), 부주의(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 폭력범죄자의 경우 우발적(40.7%), 가정불화(9.7%), 부주의(1.0%), 현실불만(0.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 큰 차이가 없음

〈표 - 80〉 폭력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명, %)

구분 / 국적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210,817	97.8	47,162	97.1	257,979	97.6
미국	241	0.1	63	0.1	304	0.1
중국	2,954	1.4	729	1.5	3,683	1.4
일본	9	0.0	12	0.0	21	0.0
몽골	185	0.1	84	0.2	269	0.1
베트남	268	0.1	169	0.3	437	0.2
태국	69	0.0	67	0.1	136	0.1
대만	70	0.0	11	0.0	81	0.0
러시아	135	0.1	54	0.1	189	0.1
방글라데시	19	0.0	0	0.0	19	0.0
스리랑카	35	0.0	0	0.0	35	0.0
우즈베키스탄	208	0.1	67	0.1	275	0.1
인도네시아	13	0.0	1	0.0	14	0.0
캐나다	44	0.0	13	0.0	57	0.0
키르기스스탄	15	0.0	7	0.0	22	0.0
필리핀	16	0.0	42	0.1	58	0.0
파키스탄	46	0.0	0	0.0	46	0.0
기타	512	0.2	92	0.2	604	0.2
계	215,656	100.0	48,573	100.0	264,229	100.0

(단위: 명)



〈그림 - 87〉 폭력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 기타 제외)

- 폭력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이 257,979명(97.6%)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외국 국적은 6,250명(2.4%)으로 나타남. 외국 국적 폭력범죄자 중 중국이 3,683명(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437명(0.2%), 미국 304명(0.1%), 우즈베키스탄 275명(0.1%), 몽골 269명(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중국 2,954명(1.4%), 베트남 268명(0.1%), 미국 241명(0.1%), 우즈베키스탄 208명(0.1%) 등의 순이고, 여성은 중국 729명(1.5%), 베트남 169명(0.3%), 몽골 84명(0.2%),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67명(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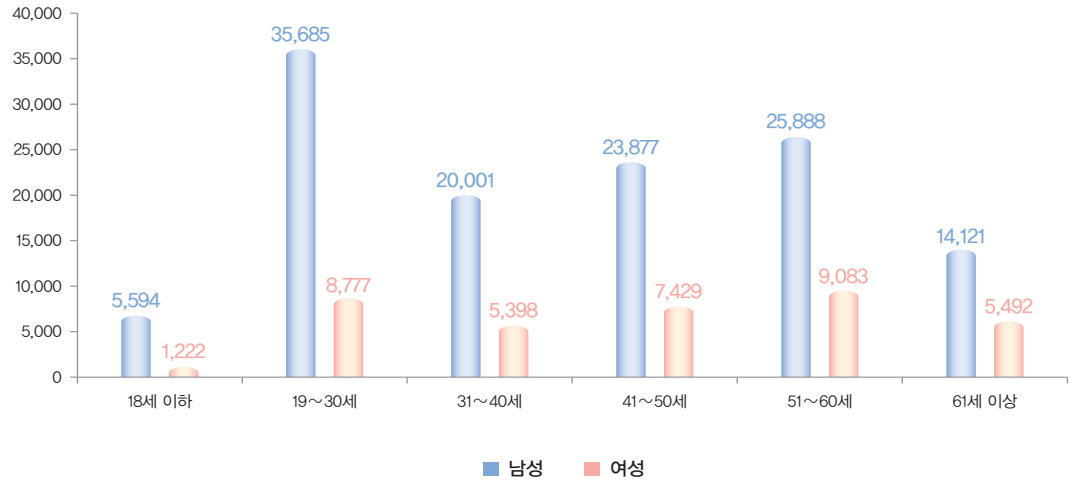
바. 사기

〈표 - 81〉 사기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8세 이하	5,594	4.5	1,222	3.3	6,816	4.2
19 - 30세	35,685	28.5	8,777	23.4	44,462	27.3
31 - 40세	20,001	16.0	5,398	14.4	25,399	15.6
41 - 50세	23,877	19.1	7,429	19.8	31,306	19.2
51 - 60세	25,888	20.7	9,083	24.2	34,971	21.5
61세 이상	14,121	11.3	5,492	14.6	19,613	12.0
미상	136	0.1	133	0.4	269	0.2
계	125,302	100.0	37,534	100.0	162,836	100.0

(단위: 명)



〈그림 - 88〉 사기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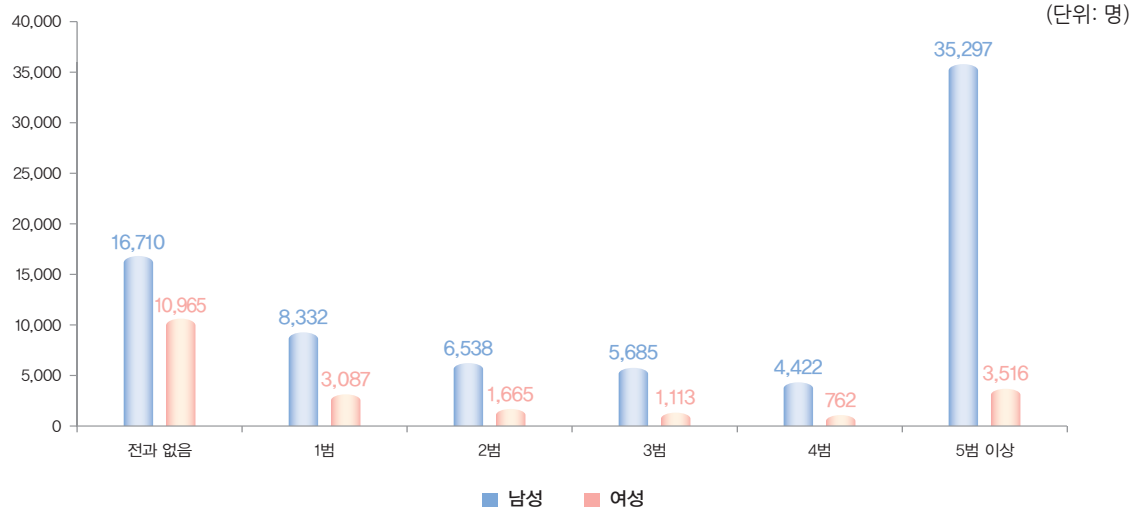
- 사기범죄자는 남성이 76.9%, 여성이 23.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20대(27.3%)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대(21.5%), 40대(19.2%), 30대(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20대(28.5%)가 가장 높으나, 여성은 50대(24.2%)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 82〉 사기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 전과횟수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16,710	13.3	10,965	29.2	27,675	17.0
1범	8,332	6.6	3,087	8.2	11,419	7.0
2범	6,538	5.2	1,665	4.4	8,203	5.0
3범	5,685	4.5	1,113	3.0	6,798	4.2
4범	4,422	3.5	762	2.0	5,184	3.2
5범 이상	35,297	28.2	3,516	9.4	38,813	23.8
미상	48,318	38.6	16,426	43.8	64,744	39.8
계	125,302	100.0	37,534	100.0	162,836	100.0

(단위: 명)



〈그림 - 89〉 사기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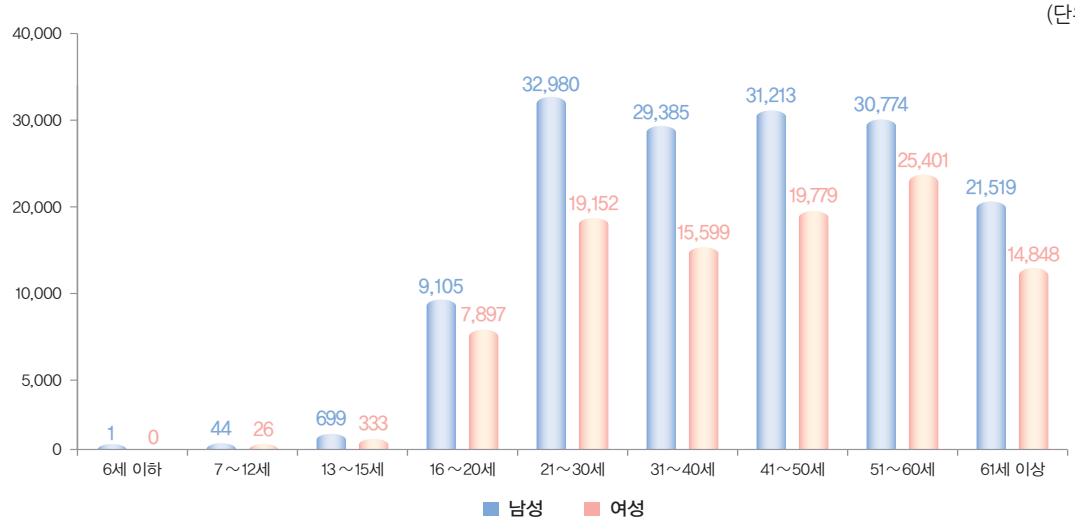
- 사기범죄자 전과횟수는 남성의 경우에 전과자(1범 이상)의 비율이 48.0%로 나타났고, 미상(38.6%)을 제외할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13.3%)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미상(43.8%)을 제외하고 전과자(1범 이상)의 비율은 27.0%로, 전과가 없는 범죄자 비율 29.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5범 이상의 전과의 경우 남성이 28.2%로 여성의 9.4%보다 3배 높게 나타남

〈표 - 83〉 사기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건, %)

구분 / 연령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1	0.0	0	0.0	0	0.0	1	0.0
7 - 12세	44	0.0	26	0.0	2	0.0	72	0.0
13 - 15세	699	0.4	333	0.3	5	0.0	1,037	0.4
16 - 20세	9,105	5.8	7,897	7.7	75	0.2	17,077	5.8
21 - 30세	32,980	21.1	19,152	18.6	254	0.7	52,386	17.8
31 - 40세	29,385	18.8	15,599	15.1	54	0.2	45,038	15.3
41 - 50세	31,213	20.0	19,779	19.2	2	0.0	50,994	17.3
51 - 60세	30,774	19.7	25,401	24.6	0	0.0	56,175	19.1
61세 이상	21,519	13.8	14,848	14.4	1	0.0	36,368	12.4
미상	611	0.4	192	0.2	34,124	98.9	34,927	11.9
계	156,331	100.0	103,227	100.0	34,517	100.0	294,075	100.0

(단위: 건)



〈그림 - 90〉 사기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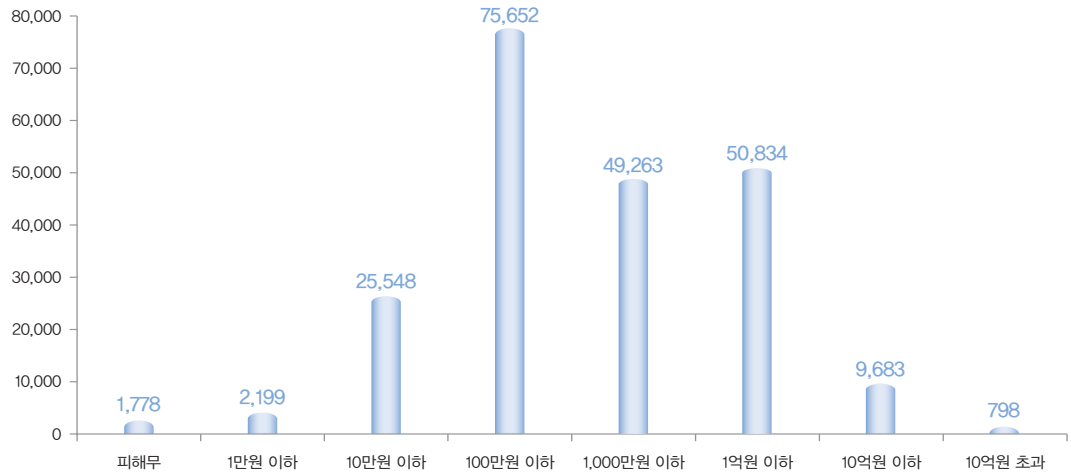
- 사기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53.2%, 여성이 35.1%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성별 불상자는 11.7%)
-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대는 50대(19.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대(17.8%), 40대(17.3%), 30대(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84〉 사기범죄 피해금액

(단위: 건, %)

피해금액 \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1,778	0.6
1만원 이하	2,199	0.7
10만원 이하	25,548	8.7
100만원 이하	75,652	25.7
1,000만원 이하	49,263	16.8
1억원 이하	50,834	17.3
10억원 이하	9,683	3.3
10억원 초과	798	0.3
미상	78,320	26.6
계	294,075	100.0

(단위: 건)



〈그림 - 91〉 사기범죄 피해금액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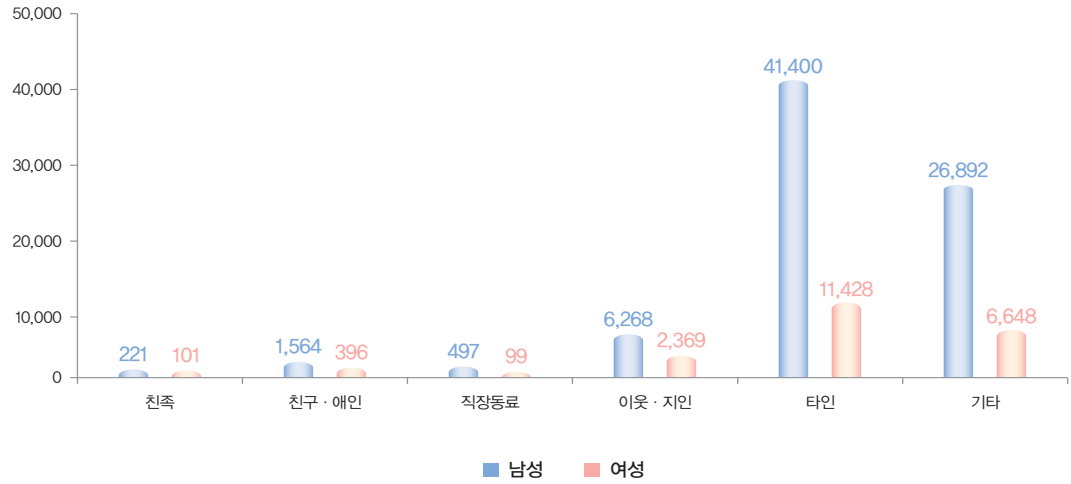
-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25.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억원 이하(17.3%), 1,000만원 이하(16.8%), 10만원 이하(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기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피해가 없는 피해자의 비율이 0.6%고, 10억 원을 초과한 비율은 0.3%로 나타남

〈표 - 85〉 사기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

구 분 / 피해자와의 관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221	0.2	101	0.3	322	0.2
친구 · 애인	1,564	1.2	396	1.1	1,960	1.2
직장동료	497	0.4	99	0.3	596	0.4
이웃 · 지인	6,268	5.0	2,369	6.3	8,637	5.3
타인	41,400	33.0	11,428	30.4	52,828	32.4
기타	26,892	21.5	6,648	17.7	33,540	20.6
미상	48,460	38.7	16,493	43.9	64,953	39.9
계	125,302	100.0	37,534	100.0	162,836	100.0

(단위: 명)



〈그림 - 92〉 사기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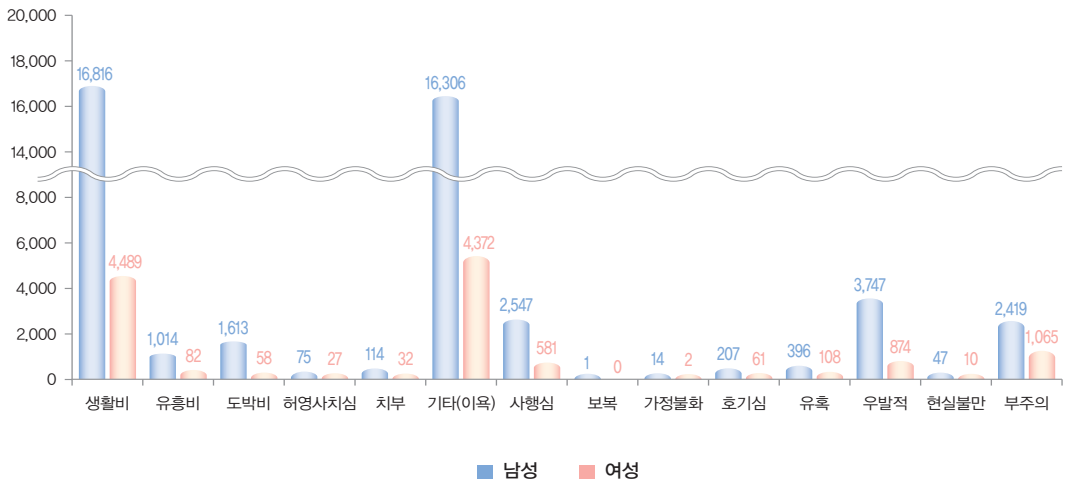
- 사기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기타(20.6%)와 미상(39.9%)을 제외하고, 타인이 대상인 경우(32.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웃·지인(5.3%), 친구·애인(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기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타인인 경우(33.0%와 30.4%)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이웃·지인(5.0%와 6.3%), 친구 · 애인(1.2%와 1.1%)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 86〉 사기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명, %)

구분 / 범행동기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16,816	13.4	4,489	12.0	21,305	13.1
유흥비	1,014	0.8	82	0.2	1,096	0.7
도박비	1,613	1.3	58	0.2	1,671	1.0
허영사치심	75	0.1	27	0.1	102	0.1
치부	114	0.1	32	0.1	146	0.1
기타(이욕)	16,306	13.0	4,372	11.6	20,678	12.7
사행심	2,547	2.0	581	1.5	3,128	1.9
보복	1	0.0	0	0.0	1	0.0
가정불화	14	0.0	2	0.0	16	0.0
호기심	207	0.2	61	0.2	268	0.2
유혹	396	0.3	108	0.3	504	0.3
우발적	3,747	3.0	874	2.3	4,621	2.8
현실불만	47	0.0	10	0.0	57	0.0
부주의	2,419	1.9	1,065	2.8	3,484	2.1
기타	31,384	25.0	9,233	24.6	40,617	24.9
미상	48,602	38.8	16,540	44.1	65,142	40.0
계	125,302	100.0	37,534	100.0	162,836	100.0

(단위: 명)



〈그림 - 93〉 사기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 · 미상 제외)

- 사기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24.9%)와 미상(40.0%)을 제외하면, 생활비(13.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이욕(12.7%), 우발적(2.8%), 부주의(2.1%), 사행심(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87〉 사기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명, %)

구분 / 국적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123,249	98.4	36,446	97.1	159,695	98.1
미국	93	0.1	35	0.1	128	0.1
중국	1,384	1.1	675	1.8	2,059	1.3
일본	12	0.0	6	0.0	18	0.0
몽골	15	0.0	14	0.0	29	0.0
베트남	81	0.1	183	0.5	264	0.2
태국	27	0.0	39	0.1	66	0.0
대만	38	0.0	9	0.0	47	0.0
러시아	53	0.0	9	0.0	62	0.0
방글라데시	11	0.0	1	0.0	12	0.0
스리랑카	5	0.0	1	0.0	6	0.0
우즈베키스탄	70	0.1	14	0.0	84	0.1
인도네시아	17	0.0	2	0.0	19	0.0
캐나다	21	0.0	10	0.0	31	0.0
키르기스스탄	6	0.0	1	0.0	7	0.0
필리핀	15	0.0	24	0.1	39	0.0
파키스탄	16	0.0	3	0.0	19	0.0
기타	189	0.2	62	0.2	251	0.2
계	125,302	100.0	37,534	100.0	162,836	100.0

(단위: 명)



〈그림 - 94〉 사기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 기타 제외)

- 사기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이 159,695명(98.1%)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외국인은 3,141명(1.9%)에 불과하였음. 외국인 국적 중 중국이 2,059명(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264명(0.2%), 미국 128명(0.1%), 우즈베키스탄 84명(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국적에서 남성 사기범죄자의 경우 중국 1,384명(1.1%), 미국 93명(0.1%), 베트남 81명(0.1%), 우즈베키스탄 70명(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 사기범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 675명(1.8%), 베트남 183명(0.5%), 태국 39명(0.1%), 미국 35명(0.1%) 등의 순으로 나타남